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 10. 12.(토), 14:00~18:00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프로그램

Program

- 사 회 :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작 장 : 이은진 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인권교육전문위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40~14:00	20	❖ 참가자 등록
14:00~14:10	10	❖ 인사말 -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4:10~15:30	80	[발제] 1. 학교 안 혐오표현의 실태 : 이해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2. 혐오표현예방 가이드라인 :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3.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 초등 : 박선영 서울돈암초등학교 교사 - 고등 : 유시경 서울효문고등학교 교사
15:30~15:40	10	휴 식
15:40~17:10	90	[지정토론] 1. 유지원 서울효문고등학교 앰네스티인권동아리 2.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3. 송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 상담팀장 4.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5.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6.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7:10~17:50	40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7:50		폐 회



● [발제]

1. 학교 안 혐오표현의 실태 : 이해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1
2. 혐오표현예방 가이드라인 :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 13
3.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 초등 : 박선영 서울돈암초등학교 교사 ..... 27
  - 고등 : 유시경 서울효문고등학교 교사 ..... 37

● [지정토론]

1. 유지원 서울효문고등학교 앰네스티인권동아리 ..... 47
2.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55
3. 송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밍동 상담팀장 ..... 71
4.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 84
5.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91
6.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100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발제]

## 학교 안 혐오표현의 실태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학교 안 혐오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학교의 질서와 문화<sup>1)</sup>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1. 교실로 들어온 혐오

‘혐오’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낮설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은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여성 등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혐오 현상도 언론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해왔다. 2016년과 2017년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차별하고 증오하는 혐오 현상이 학교 안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기사들이 열띠게 보도되었다. 교실이 “혐오의 배양지”라는 표현<sup>2)</sup>은 학교의 존재 의미 자체를 흔드는 선언이었다. 특히, 학교 안 여성혐오 현상은 2018년 초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스쿨미투 운동 등으로 그 심각성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대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혐오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고민과 실천이 교육 정책보다 한 발 앞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다.

1) 이 발표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8년 연구과제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이혜정, 김아미, 남미자, 민윤, 박진아, 이신애, 이정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2019 국제인권도시포럼 <혐오차별세션(2019.10.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함.  
 2) 최미량 외(2017). [창간 기획-혐오를 넘어](1) ‘엄마’를 욕하며 노는 아이들…교실이 ‘혐오의 배양지’가 되었다, 경향신문 2017.10.1.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11935005#csidx18484261393a8348869ac567638594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011935005#csidx18484261393a8348869ac5676385940))

## 1) 교실 내 성차별과 여성혐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과제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를 진행하면서 들여다본 학교와 교실의 상황은 연구진들의 예상보다 심각했다. 대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생들을 면담하고 관찰한 결과, 학생들에게 혐오표현은 일상적인 문화와 언어로 자리잡고 있었다.

연구 참여 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혐오 현상은 여학생들의 외모를 둘러싼 여성혐오였다.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유경준: 맞아, 생얼이랑 화장하면 진짜 달라요.

임승윤: 피부 색깔이.

박준호: 맞아, 피부 색깔이 너무 달라.

유경준: 문연재도 달라.

임승윤: 애가 시궁창에서 갑자기 스케이팅장으로.

박준호: 화장을 안 하면 왠지 아파 보인다 해야 되나?

유경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런데 개를 좀 비하하는 것은 안 되죠? 화장 안 했을 때는 멧돼지 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미안한데 개는 솔직히 말하면 멧돼지 같이 그런 색이에요, 얼굴이. 근데 화장을 하면 가부키 색.

연구자1: 가부키 색?

유경준: 네.

연구자1: 가부키가 뭔지 알아요?

유경준: 엄청 하얗잖아요. 그 정도로 진하게 하고. (남학생 집단면담, 30)<sup>3)</sup>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학생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진하게 해도 남학생들에게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남학생들의 혐오표현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남학생들의 여성 외모에 대한 평가 기준인 ‘예쁜’ 얼굴이냐의 여부를 두고 보면, 일관된 논리에 따른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예쁜’ 여학생들의 화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혐오표현도 하지 않는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외모를 예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성을 ‘예쁜’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시선과 평가의 남성중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쁨’은 곧

---

3) 이해정 외(2018), p.128



다음 표에서 제시된, 여학생의 외모를 둘러싼 혐오표현<sup>5)</sup>들은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예쁜’ 얼굴과 크지 않은 몸을 가져야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문화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을 들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급의 대다수 여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여학생의 외모를 둘러싼 혐오 표현

혐오 대상 여학생	혐오 표현
살집이 있는 학생	똥똥하다, 돼지, 돼지새끼
체격이 크며 힘이 센 학생	큰형님
못생긴 외모를 가진 학생	얼굴 뺨았냐
화장을 진하게 한 학생	가부키
화장을 하지 않은 학생	시궁창, 멧돼지

## 2)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 문화와 무능력한 학생에 대한 혐오

학교 안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여학생만이 아니었다. 성적이 낮은 학생, 게임을 잘 못하는 학생 등 무능력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 또한 혐오표현을 들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문성진: 네, 저희 반에 한 여자애가 있는데요. 개가 많이 좋고 좀 외모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고 솔직히 안 하면 결과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 맨날 애들이 개 보고 ‘너 또 시험 못 봤지?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해요.

권민진: 네. ‘맨날 처자니까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래요(여학생 집단면담, 28)<sup>6)</sup>.

성적이 낮은 편에 속하는 한 여학생은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학급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했다. 학생의 낮은 성적이 놀림과 비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학교와 학급에서 성적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산층 밀집 지

5) 이해정 외(2018), p.134

6) 이해정 외(2018), p.148

역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중요시하며 학교는 이에 부응하는 학교의 질서와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성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 3)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혐오표현 중심의 혐오 현상

학생들의 혐오표현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간접적인 차별표시 등의 유형에 비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멸시, 모욕 유형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멸시, 모욕은 다른 학생을 동물화하고, 공격적으로 혐오표현을 쓰며, 다양한 욕설을 쓰는 것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특히, 괴롭힘의 대상과 욕설의 기원적 대상이 다른 욕설을 정리한 다음의 표<sup>7)</sup>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학급 내에서 어떤 학생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지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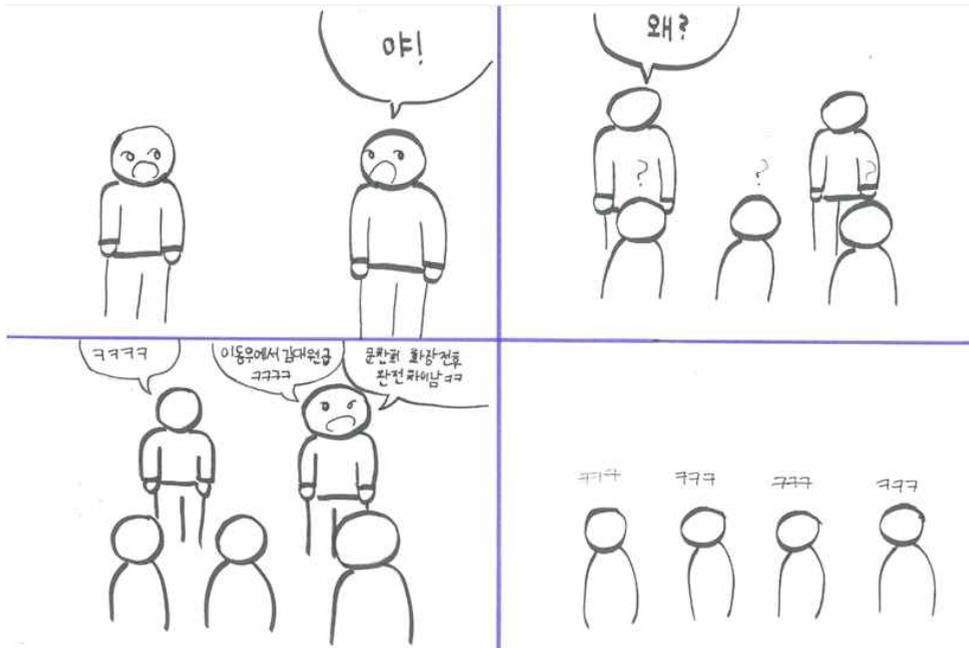
〈표〉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욕설

괴롭힘의 대상 (혐오 표적 집단)	욕설의 기원적 대상 (사회적 소수자 집단)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담은 욕설
말싸움 상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욕설에 대한 맞대응	여성(엄마)	패드립: 느금마, 니 에미, 엄마 없다, 차오니마, 걸레, 엠창
“터무니” 없고 “맥락” 없이 “특이” 하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여성, 엄마, 장애인, 만성질환자	병신, 지랄, 염병, 느금마, 미친년, 씨발년
“나대는” 사람	만성질환자	지랄, 염병
애교 부리는 사람	장애인	병신, 병신 짓 하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정상가족	호로새끼, 부모가 홀수네, 엄마 없다
(온라인게임 등에서) 무능력한 사람	장애인, 여성(엄마)	병신, 손병신, 에미 없냐, 차오니마

7) 이해정 외(2018), p.163

#### 4) 무시하거나 동조하면서 견뎌야하는 교실 내 혐오 현상

학생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을 꺼린다. 혐오 현상은 또래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장난과 재미로 한 것에 진지충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혐오를 당하고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 분위기에 동조하면서 혐오 현상을 견디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만화<sup>8)</sup>는 그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화 속 여학생은 화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놀림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웃으며 상황을 겪어낸다. 나중에 이 여학생은 개별 면담에서 이 상황이 힘들었으며 화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림〉 집단면담 ‘이야기 만들기’에서 그린 문연재의 만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혐오표현과 혐오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해결 방안, 대응 체계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이 곧 학교폭력 사안으로 넘어갈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외모 평가와 혐오표현으로 상처

8) 이해정 외(2018), 0.182

받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함께 남학생들을 비난 하기는 한다. 그런데 담임교사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이러한 공분은 학교나 학급의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 2. 혐오의 뿌리는 학교의 질서와 문화

연구 과제 진행 초기에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여기에 공부 잘하고 성인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은” 학교에 비하여 혐오를 주제로 한 이 연구의 결과를 얻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은 혐오 현상을 일탈로 보는 것이다. 혐오는 증오의 감정과 태도이며 이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배적인 질서와 문화로부터 배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현상은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현상이다.

예컨대, 무능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혐오는 성취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다. 학업성취를 중요시하는 연구 참여 학교의 경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과 능력, 성적이라는 결과가 학교의 지배적인 질서였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호의와 신뢰,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높은 관심 등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게 만들 것이다. 학교의 지배적인 질서가 성적과 성취 중심인 한, 학생들이 무능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존재를 혐오하는 것은 바뀌기 어렵다.

학교의 지배질서가 재생산되는 것은 곧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교사나 보호자, 학교 제도와 질서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혐오 현상은 학교 안에서 누가 차별당하고 배제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학교 안에서 누가 ‘정상’으로 존중되는지를 배우는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있는 비공식적인 질서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힘은 인기 있는 남학생들 위주로 재편되어 있다. 이 남학생들이 학생과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남성성의 과시는 여성혐오와 연결되며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혐오 현상이 학생들 간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학급 내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을 멈출 때 가능하다.

### 3. 학교 안 혐오현상과 민주시민교육

연구과제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각각 학급과 수업 차원, 학교 차원 그리고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과제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평등한 학급 운영과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수업 재구성
- 2)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성평등교육 실시
- 3)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 실시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교 안 혐오 현상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학교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는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법적 제도를 통해 공표하고 학습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혐오표현과 혐오 현상은 규제나 계몽만으로는 없애기 어렵다. 특정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계몽은 다른 혐오표현들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혐오표현은 수개월을 주기로 계속하여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학교 안 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학교라는 질서와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이다.

학업성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경쟁 공간에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가 실제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 교육을 표방하면, 학생들은 드러나지 않는 학교의 의도와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경쟁과 능력주의, 성차별주의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학교의 지배적인 질서와 문화가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 이 성찰이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교육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발제]

## 혐오표현예방 가이드라인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인권교육포럼(19.10.12)

##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이승현 (법학박사, 연세대)  
nuhogel@hanmail.net

## 혐오표현 대응의 필요성

- 혐오표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
- 혐오표현의 양상
  - 표적집단의 속성이나 그 속성을 보유한 인간 자체가 흉악하거나 더러움
  - 표적집단은 아동과 같이 무지하거나, 불쌍한 동정적인 존재로서 지도나 교육이 필요함
  - '일반적인/정상적인/올바른' 타인들, 나아가 사회전체나 세계전체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하는 것이 사회전체 이익이나 도덕성에 비추어 올바름(정당화의 과정)
- 혐오표현의 문제점
  - 대상 집단 구성원에게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 내면의 자기부정을 야기. 인격권 침해
  -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외현화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적 환경 하에 대상 집단 구성원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거나 침묵시킴+공론장 전체에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킴 → 공론장의 토론문화 왜곡
  - 차별과 불평등 강화, 확산: 대상 집단 구성원의 자기부정과 차별상황의 납득, 다른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화시켜 자신의 취약성과 배제의 상황 전복 시도 현상, 사회적 차별에 노출된 일상생활의 경험 지속, 차별적 정책과 제도 존속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법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 현행법상의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법적 규제 의 실효성
- 법적 규제 의 선결조건
  - 교육과 캠페인: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표적집단인 소수자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에서 접하는 일상의 차별에 대한 경험적인 교육이어야 함. 다른 한편, 규제주체인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인식교육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병행
  - 대항언론 활성화: 대항언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이 대항언론을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역량과 주위의 지지기반이 필요함. 예를 들어 표적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관련 단체에 대한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통한 추상적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유효함
  - 제도적 차별철폐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적 대응: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는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 차별금지법, 소수자할당제
  - 자율규제: 시민사회의 각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을 포함한 차별의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실행의 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보통신망 상 유해정보 중 '차별·비하' 심의통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심의	752건	861건	1,184건	3,022건	1,356건
시정요구	622건(82.7%)	723건(84.0%)	891건(75.3%)	2,455건(81.2%)	1,166건(86.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 연감,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③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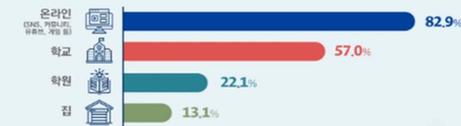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제21조 회원사는 지역·장래·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 - 장소, 주체별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57.0%)에서, 친구(54.8%)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1%였습니다.

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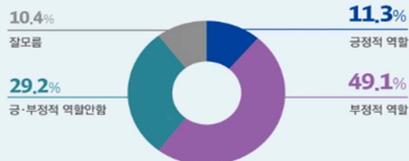


위에 대한 국민안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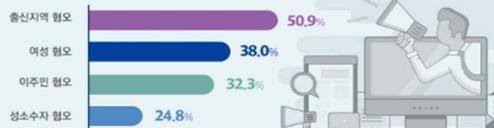
혐오표현과 언론

언론 역시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49.1%)을 한다는 인식이 높고, 언론의 혐오표현 대상으로는 특정지역출신자(50.9%), 여성(38.0%), 이주민(32.3%), 성소수자(24.8%)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역할



'언론 조장' 심각한 혐오 유형 (1+2순위)



위에 대한 국민안심조사 결과

YouTube에서는 중요성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 연령
- 카스트
- 장애
- 민족
- 성 정체성
- 국적
- 인종
- 이민 신분
- 종교
- 성별
- 성적 취향 → 지향
-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 단편 여부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부적절한 동영상이나 댓글의 수가 많거나 특정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콘텐츠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합니다. YouTube에서는 위협을 허용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위협 및 괴롭힘**에 관한 YouTube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다른 콘텐츠 유형**

- 개인이나 집단을 인간 이하로 묘사하거나 동물, 곤충, 해충, 질병 또는 기타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찬양하거나 미화합니다.
- 중요성 조장을 주 목적으로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중요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고정관념을 표현합니다. 말,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형태로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사실처럼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요성을 조장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병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능 또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폭력,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 앞서 언급된 특성을 지닌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사악하거나 부정적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예측 또는 지배를 주장합니다.
- 여러 근거를 통해 이미 입증된 폭력적 사건의 발생을 부인합니다.

**교육 콘텐츠**

교육, 기록, 과학 또는 예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요성 표현을 포함한 콘텐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성 표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단체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요 단체를 지지하거나 그들의 사고방식을 옹호하지 않는 교육 콘텐츠는 허용됩니다.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다큐멘터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다큐멘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특정 집단의 열등함이나 우월함에 관한 이론을 다루더라도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열등하거나 인간 이하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실시간 스트림, 그 외 모든 YouTube 제품 또는 기능에 적용됩니다. 중요성 표현이 포함된 교육 콘텐츠의 경우 동영상의 이미지나 오디오로 해당 내용을 나타내야 하며 제목 또는 설명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  
다음은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요성 표현의 예입니다.

-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기쁩니다.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죠.'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개입니다' 또는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예시 더보기**

- '밖으로 나가서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을 한 대 치세요.'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모두 범죄자이며 폭력배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쓰레기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뇌가 엄청 작아서 우리보다 멍청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우리의 존재에 위협이 되므로 가능한 한 몰아내야 합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집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 '[앞서 언급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 '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연기일 뿐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거짓말에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사례(SPLC)	
<p>사건 발생시 가이드</p> <p>(1)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안전 담당자 및 외부의 법 집행기관에게 연락하기</li> <li>-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지 확인하기</li> <li>- 사건 대응팀 조직하기</li> <li>- 가해자를 격리시키기</li> </ul> <p>(2) 사안에 관해 밝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된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li> <li>- 상황에 관해 발표할 때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총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히기,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곳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기</li> </ul> <p>(3) 조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내리지 않기</li> <li>- 단순한 장난인지, 혹은 더 큰 문제,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형성된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li> <li>- 조사 과정에서 편견이나 혐오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학교 문화와 분위기를 세심하게 관리하기</li> </ul> <p>(4)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에 따라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교직원, 학생, 보호자, 행정구역 내 담당 공무원, 졸업생 등)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정부기관, 인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신건강상담가, 선출직 공무원 등)로 확대하기</li> </ul> <p>(5) 언론매체에 대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및 언론매체와의 소통창구 단일화</li> <li>- 언론 인터뷰 등을 피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헛소문이나 추측성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기</li> </ul> <p>(6)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문을 제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미디어나 뉴스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소문에 대하여 대응하기</li> </ul> <p>(7) 피해학생을 지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학생에게 입장을 묻는 행위로 곤란하게 하지 말 것</li> <li>-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관하여 안내할 것.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말 것</li> <li>- 학교의 부족한 점에 관해 사과하고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것</li> <li>-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성적정체성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주의하게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li> </ul> <p>(8) 정의구현에 집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된 행위에 걸맞은 처분과 징계 내리기</li> <li>- 가해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하기</li> <li>- 학부모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기</li> </ul> <p>(9)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와 문제를 빨리 종결하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공유하기</li> <li>- 학교 내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기</li> </ul>	<p>a guide for administrators, counselors and teachers RESPONDING TO HATE AND BIAS AT SCHOOL. (Southern Poverty Law Center Teaching Tolerance team)</p>

영국사례(Dulwich Hamlet Educational Trust)	
<p><b>차별적 행위의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보호된 특성을 이유로 하는 신체적 폭행</li> <li>o 경멸적인 별명의 사용, 모욕 및 농담</li> <li>o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및 차별적인 낙서</li> <li>o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를 표현하는 배지나 장신구 착용</li> <li>o 차별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의 반입 및 사용</li> <li>o 언어폭력 및 위협</li> <li>o 보호된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li> <li>o 토론 과정 중에서 차별적인 발언</li> <li>o 차별을 위한 단체나 모임에 사람들을 가입시키려는 시도</li> <li>o 음식, 음악, 종교, 복장 등 차이를 지적하며 놀리는 행위</li> <li>o 성별, 종교, 장애,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협력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li> </ul> <p><b>체크리스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학업성취, 출석률, 직원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종, 장애, 성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학교의 정책, 계획, 실천, 수업, 지원, 교육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까?</li> <li>- 평등권 규정의 수립 시, 학생과 보호자, 직원들의 의견제시 및 참여가 반영되었습니까?</li> <li>-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인종, 장애, 성별에 따라 분석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li> <li>-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인종, 장애, 성에 따른 평등이나 차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li> <li>-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받고 있습니까? 학교의 다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li> <li>- 인종, 장애, 성별에 따른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는 학생이나 직원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까?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li> <li>- 시각자료의 사용은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수업 등에서 소수민족, 장애, 동등한 성역할 등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li> <li>- 인종, 장애, 성차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Black History Month, Deaf Awareness Week 및 One World Week 등의 연례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li> <li>- 학교는 모든 학생과 직원, 방문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까? 저녁 시간 등에 열리는 행사는 학부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 등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까?</li> <li>- 인종, 장애, 성별 등의 영역에서 학교의 모든 정보나 게시물 등이 학부모나 학생, 직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li> <li>- 학부모 운영위원 선거에 관한 절차가 장애인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열렸습니까?</li> </ul> <p><a href="http://www.dulwichhamletjunior-school.org.uk/policies-and-reports.html">http://www.dulwichhamletjunior-school.org.uk/policies-and-reports.html</a></p>	<p><b>교수학습</b></p> <p>학교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li> <li>- 학생들이 학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li> <li>- 회의, 서적, 출판물, 학습자료 등의 사용 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다.</li> <li>- 수업 및 직원회의 시간에 고정관념 및 평등권 관련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li> <li>-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를 장려한다.</li> <li>-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li> <li>-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에 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목표를 수립할 때 모든 학생들의 성취를 고려한다.</li> <li>- 인종, 성별, 장애 등에 따른 학생의 성취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격차를 해소한다.</li> <li>-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li> </ul>

##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본 요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연구용역보고서)

### I. 문제 현황

- ❖ 오늘날 혐오표현은 고의적, 무의식적, 관습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를 어렵게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심각하다.
- 혐오표현의 확산과 해악
    - 표적집단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일상·사회생활의 기반 제약
    - 사회공동체에 차별과 편견을 확산
    - 아동 청소년 시기의 자존감과 자아형성의 치명적 영향(초·중·고·대학), 파급력 및 해악 증대(공공기관, 언론 및 온라인)
  -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혐오표현 발생시 상담, 신고, 고충처리 절차 부재 또는 인지도 미흡
    - 혐오표현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관련 규정 미흡
    - 혐오표현 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
    - 해당 영역 구성원들의 혐오표현 심각성·대응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식 제고의 효과에 공감

### II. 가이드라인의 목적

- ❖ 이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 ❖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긍정하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파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
    -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 및 관리자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 중요
    - 조직 내 표적집단 구성원인 소수자에 대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을 확인, 상기시킬 수 있는 분위기 마련
  - 피해 예방 및 대응
    - 조직 내 교육훈련을 통한 예방과 사건 발생시 피해구제
  - 민주주의와 평등
    - 혐오표현이 표적집단 구성원의 평등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차별을 확산시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짐
  - 표현의 자유의 증진
    - 혐오표현으로 인해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
    - 표현의 자유가 표적집단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할 자유로 곡해될 가능성에 유의

### III. 법적 근거

- ❖ 이 가이드라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정책은 다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i)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 ii) 국내 법령: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 관련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조례 등
- iii) 조직 내 각종 규정: 행동규범, 윤리준칙 등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에 대해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청(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
- 첫째,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집단에 대해 증오를 고취하는 행위여야 하며, 둘째, 그 증오의 고취는 선동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라는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인종적 우수성이나 적대감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와 인종 및 피부색·민족적 출신이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차별 및 폭력 선동을 금지(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 한국은 유보없이 위 조약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됨(대한민국헌법 제6조)
-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괴롭힘 등으로 포섭하여 금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성희롱, 괴롭힘, 차별행위 등

### IV. 적용범위

- ❖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
- ❖ 가이드라인은 조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온라인 활동이 포함된다.
- ❖ 가이드라인은 조직과 계약, 사무위임, 위탁, 예산지원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 기관의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

- 조직 내 모든 구성원
  - 교사, 직원, 학생(초중고), 교수, 직원, 학생(대학), 모든 임직원(공공기관, 언론사)
  - 권력관계 등에 따라 대상집단 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의 혐오표현, 학생이 교사나 직원에게 하는 혐오표현, 교사나 직원이 학생에게 하는 혐오표현, 교사나 직원들 사이 등.
- 다양한 공간
  - 교실, 교무실, 복도, 운동장 등 학교 공간, 수업시간, 조례·종례 등 학교의 일과시간, 수업에 활용하는 각종 자료나 학교 환경 게시물 등(초중고),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교내활동, 현수막, 대자보, 교내신문, 교내방송, 기타 발간자료, 각종 회의 등(대학), 근무공간,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공공기관), 근무공간 및 작성 기사(언론)
- 온라인 포함
  - 홈페이지, 내부망,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등에서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게재하거나 주고받는 문답 등
- 조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 조직원이 관계 기관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듣게 되거나, 거꾸로 그들에게 혐오표현을 한 경우

### V.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

- ❖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 1)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 어떤 집단의 부정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말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 2) 멸시, 모욕, 위협: 어떤 집단을 동물이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멸시·모욕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3) 차별·폭력의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
- ❖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위의 혐오표현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을 통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한 경우에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발화자의 의도, 2) 발화자의 권력 및 피해자와의 권력관계, 3) 표현된 언어의 내용과 형식, 4) 표적집단에 대한 파급력 및 전파력, 5)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7) 표적집단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
- ❖ 혐오표현의 방법: 혐오표현은 말과 글뿐만 아니라, 차별을 상징하는 복장, 상징물,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 “어떤 집단이나 계급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일반화”로서, “사람들을 나쁜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전형화(stereotype)
-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모욕·위협하는 표현”,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욕설 표현.
-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악의, 폭력과 공격을 조장·선동하는 행위”
  - 집단이나 계급 구성원을 향한 혐오, 차별, 폭력을 의도적 또는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선동·고양·옹호하며, 이는 실제로 해당 집단을 향해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그런 집단을 향한 차별이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단순히 미화함

### ❖ 참조: 언론 기사 작성 체크리스트

1.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과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가?
3. 혐오표현 발화자의 사실 주장에 대하여 확인 없이 인용하거나, 중립적 기사 구성을 위해 찬반의견을 형식적 혹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가?
4.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인상을 심어주는 제목, 사진, 삽화,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5. 혐오표현을 직접 인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구성원의 심리적 고통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폭력 선동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명백한가?
6. 혐오표현 발화자의 지위, 동기, 배경, 영향력을 포함하여 혐오표현 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고 있는가?

## VI.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 모든 구성원은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모든 구성원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와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대항언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 ❖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개발, 교육, 홍보, 혐오표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공정한 절차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 혐오표현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전형화는 국가에 의한 행위 규제를 통해서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공유와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며, 국가는 각 공동체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조직 내 구성원 모두가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 혐오표현을 표현으로 맞대응함으로써 혐오표현을 무력화시키는 대항표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함. 대항표현만으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자력화'(empowerment)에도 중요함
  - 조직의 관리자를 포함하여 각 구성원들의 책임의 중요성
  - 초중고: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장 등 관리자, 공교육 교사로서의 책임과 인식
  - 대학: 기관장의 역할, 전문성 및 권한, 위원회의 자격과 구성, 직원의 지위, 상담과 조사의 역할 충실
  - 공공기관: 기관 내 상담 및 고충처리 기구, 대응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역할
  - 언론: 데스크 등 관리자 및 기사 완성에 관여하는 편집, 디자인 등 다른 구성원의 역할
  - ❖ 시민이 공무원이나 기자에게 하는 혐오표현 역시 대응하여야만 표적집단이 되는 소수자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나 보도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음

## VII. 예방

- ❖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개선을 위한 일상적, 공식화된 교육과 홍보 정책 마련 및 해당 소수자 친화적인 문화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국가기관, 대학교육협의회나 기자협회 등과 같은 해당 영역의 협회, 노동조합,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개발한 정책을 참고하여 각자 기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개발
  - 주요 예방 정책
    - 혐오표현 예방 교육에 초기교육과 필수교육 포함
    - ✓ 교사 및 학교장 양성과정 및 재교육 과정, 기존 교과수업 연계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 혐오표현 예방교육 체계화공식화(초중고), 신입교원 임용시 예방교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혹은 교양강좌 등 정규교육 과정(대학), 기초 직무 훈련(공공기관), 기자(공통 수습기자교육)
    - ✓ 특히 각 기관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경우 SNS등 온라인 매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과 존중의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공식화
    - ✓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편견과 혐오의 문화를 개선하는 전반적인 노력 병행
    - ✓ 혐오표현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의 인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업무와 연장성에서 이해를 증진
    - ✓ 직장 내 일정 기간 내부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외부행사 참여 독려
    - ✓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지역사회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

#### Ⅷ.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 ❖ 조직적 차원에서 혐오표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원칙과 절차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 모든 구성원은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조직 내 책임부서에 신고한다.
- ❖ 혐오표현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그 운용 시에 책임부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대응한다.
  - 사건 발생 시 적시에 대응 절차 진행
  - 혐오표현에 관한 상담과 중재 등 비공식 절차의 운용
  -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
  -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
  - 피신고인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
  - 피해자 및 해당 표적집단에 대한 지원
  - 피신고인의 재반론 및 소명 기회 보장
  -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
  - 사건 관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절차 적용
  - 가해자에 대한 교육, 징계 등 가능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
  - 해당 공동체 내의 자율적 해결과 법적 해결의 조율
  - 후속조치로서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사건 기록 보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형성

-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 사건 처리 담당 실무자에 대한 업무 과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노동환경 및 업무 분담
- 기존 고충처리절차의 관할에 혐오표현이 모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구성원 내외부의 업무 협력과 연계 및 사후교육

#### Ⅸ. 검토

- ❖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정책과 집행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 매해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을 평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함
- 가이드라인 정책과 집행실태 점검, 구체적인 사건 처리 후 개선점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이고 유효한 혐오표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

“존경과 인정이 타인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듯이, 멸시와 증오는 대개 타인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한다”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타인의 고통은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그러면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일레인 스캐리, <타자를 상상하는 일의 어려움>)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발제]

#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 초등 -

박선영  
서울돈암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박선영 서울돈암초등학교 교사

### 들어가며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주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 줄 것인가는 초등 교사들에게 큰 과제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욕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한 욕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욕 사용은 갈등의 원인이 되며 갈등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평화샘 프로젝트, 비폭력 대화, 나 전달법 등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교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욕을 잘 들여다보면 혐오표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발, 엠창, 애자, 병신, 니애미, 게이, 동남아, 흑형 등 학생들이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입니다. 교사인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등학생들은 혐오의 감정을 내면화하기 전에 혐오표현을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3학년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아예 뜻을 모르고 쓰는 학생들도 있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겠지만 교사의 꾸중이나 벌점, 학급 규칙, 친구 마음에 공감하기 등으로 학생들이 욕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욕을 사용함으로써 또래집단 내의 소속감 또는 권력을 확인하며, 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이고 이미 그것이 언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이 나쁜 말이고,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은 욕을 사용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인이 되기에 전혀 강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의 경우는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넘어 더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데 그것을 초등학교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혐오는 모르고 혐오표현만 재미로 사용한다고 해서, 혹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가르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튜브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학생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혐오 세력이 제작하는 콘텐츠나 가짜뉴스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혐오에 맥락이 제거된 아주 약간의 팩트를 섞어 사람들이 ‘불합리한 공포’를 마치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여 편견과 혐오를 조장합니다. 혐오의 피라미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은 실제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인권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업 활동 예시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권, 정체성, 권력, 불평등, 소수자 등의 개념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과 다양한 예화 및 사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의 교차적인 위치성과 모든 구성원의 공존을 위해 연대가 필수적임을 이해하는 것이 수업 목표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감정이입이나 시혜적인 태도는 자신과 소수자에 대한 거리 두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총 세 차시의 수업 활동 예시를 소개합니다.

1차시. 나는 어떤 색깔 물고기일까?

혐오표현을 주제로 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를 통해 수업의 주제에 쉽게 접근합니다. <감기 걸린 물고기>는 혐오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감정인지, 그것에서 비롯된 혐오표현이 어떻게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지,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간결한 플롯으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그림책은 혐오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수업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도 다양한 활동 및 자료와 그림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수업의 핵심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림책을 통해 정체성, 혐오, 소수자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p>주인공은 배고픈 아귀와 알록달록한 물고기 떼입니다. 아귀는 물고기 떼를 잡아먹고 싶지만, 푹푹 뭉쳐 헤엄치는 녀석들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던 아귀는 물풀 사이에 숨어 조그만 목소리로 소문을 냅니다.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물고기가 감기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떼는 코웃음을 치지만 아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열이 나서 온몸이 빨개진 것이라고 그럴듯한 설명을 덧붙이지요. 소문은 조심스럽게 무리 속을 파고듭니다. 그 뒤로는 물고기들의 입을 통해 점점 부풀려지고, 심각해지고, 확산을 불러오지요. 결국 “우리한테 옮기 전에 당장 내쫓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귀는 입을 찹 벌리고 기다리다가 쫓겨난 빨간 물고기들을 날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문을 냅니다. “얘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그새 옮았다는구나.”라고요. 이제 물고기 떼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의심합니다. 다른 색깔 물고기들을 줄줄이 쫓아내면서요. (출처 : 예스24)</p>
<p>&lt;감기 걸린 물고기&gt; 박정섭 글·그림, 사계절(2016)</p>	

### 〈수업 설명〉

- ◆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 ◆ 그림책의 주제 및 핵심 메시지 발견하기
- ◆ 아귀의 소문처럼 교실이나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차별과 배제의 표현 찾기
- ◆ 그러한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지 찾아보기
  - 질문 : 이러한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장애인, 유색인종, 여성, 어린이, 성소수자 등)은 '장애인', '어린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 정체성 개념 도입하기
  -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혹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갖고 있는 특성을 떠올려보고 '나'를 나타내는 물고기 색칠하기
  - 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은 적 있는 특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들었던 경험 나누기

### 〈유의점〉

- ◆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찾을 때 단순한 관심 끌기나 유희 거리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알려 주세요.
- ◆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혹은 이미 차별 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들었거나 차별 당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만약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경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교사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 2차시. 싫어하면 왜 안 돼?

1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정체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차시에서는 혐오의 감정이 단순히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마치 아귀의 소문이 그랬던 것처럼 혐오에는 근거 없는 이유와 편견이 따라 붙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서 혐오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실제 자주 사용되는 혐오 표현을 통해 짚어봅니다. 또한 혐오는 소수자를 향하며, 그것이 혐오의 피라미드에 따라 소수자를 사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 기사를 통해 오늘날의 소수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업 설명〉

◆ 싫어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 구분하기

나는 매운 음식을 싫어해. 나는 쥐를 싫어해. 나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 나는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해. 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해.	나는 한국 여자들을 싫어해. 나는 동성애자들을 싫어해. 나는 무슬림을 싫어해. 나는 난민을 싫어해. 나는 정신질환자를 싫어해.
---	--

- 위의 문장들을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 사람들이 어떤 집단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기

나는 한국 여자를 싫어해.	→ 이기적이어서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해.	→ 병을 옮긴대서
나는 무슬림을 싫어해.	→ 테러를 일으키고 다녀서
나는 난민을 싫어해.	→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아서
나는 정신질환자를 싫어해.	→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서

◆ 혐오의 개념 도입하기

- 혐오 :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악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 역사 속 혐오 알아보기

-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을 사례로 나치와 일제가 유대인과 조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근거로 혐오를 조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통해 혐오의 해악 이해하기

- 나치와 일제가 정부의 실패를 감추고 분노의 대상을 소수자에게 돌리는 수단으로 혐오를 사용한 것을 <감기 걸린 물고기> 그림책 속 아귀의 행동과 비교해보기

◆ 소수자에게 향하는 혐오가 오늘날에는 누구를 향하는지 알아보기

- 뉴스 사례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찾아보기

예시)

• 스타벅스 직원의 인종 차별	• 장애 학교 설립 반대
•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 제주 예멘 난민 반대
•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 어느 대학의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 〈유의점〉

◆ 싫어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을 구분하는 활동에서 '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해.'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학생들이 오히려 혐오의 근거나 편견을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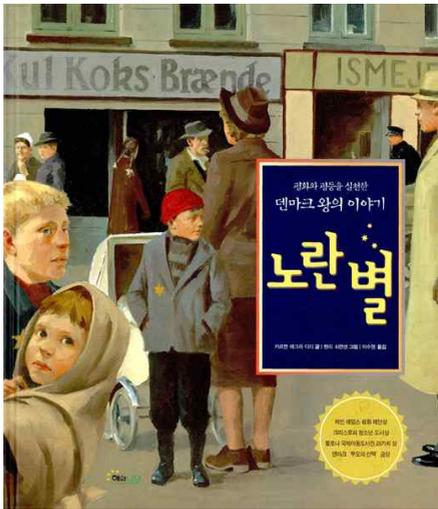
◆ 혐오가 왜 소수자에게 더 힘이 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시켜 주세요.

◆ 혐오는 단순히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그 정도가 연쇄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시켜 주세요.

◆ 학급에 소수자인 학생이 있을 경우 학급 내의 권력 관계, 학생들의 인권 의식 등을 고려하여 혐오의 사례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 3차시.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국가와 사회마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혐오표현을 그대로 방치하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고 소수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별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대항표현을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위치성을 인지하기 어렵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나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예화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란 별 : 평화와 평등을 실천한 덴마크 왕의 이야기〉  
카르멘 애그라 디디 글, 헨리 쇠렌센 그림,  
해와나무(2007)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유럽은 독일의 나치 군대에 의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치 군대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며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치 군대는 유대인을 알아보기 위한 표식으로 노란 별을 달게 합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은 모든 국민은 하나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노란 별을 달자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마침내 유대인을 괴롭히는데 사용된 노란 별은 크리스티안 왕과 덴마크 백성들에게 단결과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참고 예화〉

#### 나와 상관없는 일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와서 살려 달라고 애원했을 때 왕의 병사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냈어요.

왕은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의 병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왕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더러워지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의 병사들은 어느 날 발이 큰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왕은 발이 큰 사람들이 게을러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의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혔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왕의 병사들이 우리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잡아갔지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출처 : 〈혐오와 인권 : 혐오표현이 왜 문제일까?〉, 장덕현 글, 윤미숙 그림, 풀빛(2019)

### 〈수업 설명〉

- ◆ 그림책 〈노란 별〉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 ◆ 〈감기 걸린 물고기〉에서 물고기 떼가 아귀로부터 자신들을 지켰던 방법과 〈노란 별〉에서 덴마크의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켰던 방법 연결하기
  - 질문 : 내가 차별받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혐오표현에 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예화 〈나와 상관없는 일〉 읽고 연대의 중요성 이해하기
- ◆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만들기

예시)

대상	혐오표현	대항표현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장애인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중교통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 장애인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엄마	조용히 밥 좀 먹고 싶은데 애들은 왜 끌고 나와서는. 하여튼 맘충들 팔자 좋게 이 시간에 밥이나 사먹고 말아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지. 나는 이제 노키즈존만 갈 거야.	모든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것을 엄마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공평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야.
살던 나라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난민을 반대한다!	우리는 난민을 환영합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

- ◆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게 하는 대항표현 구호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하기
  - 장애인의 날, 세계 여성의 날,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일에 대항표현 구호를 만들어서 교내에 홍보하기

#### 〈유의점〉

- ◆ 혐오에 맞서는 일이 소수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대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 학생들이 대항표현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자신이 예전에 사용했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을 소수자를 지지하는 말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도 좋아요.

## 마치며

지금까지 소개한 세 차시의 수업 예시는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업의 흐름과 활용할 만한 자료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수업 활동과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예시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학급의 실태 파악을 통한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학급 내의 권력 관계, 사회적 소수자 학생의 유무, 학생들의 인권 의식 수준,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 등 교사는 여러 가지 수업의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계획대로 일회성의 수업으로 끝내기보다는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 정도를 살피며 수업의 과정에서 속도를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혐오’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는 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오며 쟁취한 인권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혐오는 계속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혐오는 더욱 빠르게,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기에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라는 공통된 소수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로서 차별받았던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는 자신이 살면서 내면화한 편견과 혐오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수업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발제]

#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 고등 -

유시경  
서울효문고등학교 교사



## 고등학교 혐오표현 관련 수업 사례 발표

유시경 서울효문고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 발표를 결심하게 된 계기

1학기 시작 직후 이번 포럼의 좌장인 이은진 선생님께 혐오표현 수업했던 사례를 발표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수업은 작년 수업이고 혐오표현에 대해 학생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던 수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망설임이 많았고, 그래서 실은 거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방과 후에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수업을 하며 제가 했던 이야기 중 여성에 의한 남성 혐오는 혐오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수업을 한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모든 말을 납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 궁금한 게 풀렸다고 이야기하며 돌아갔습니다.

시도 자체로 만족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수업이 그래도 몇 명에게는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이 없었다면 학생들과 혐오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 2. 수업 진행

대상이 고등학생이었으므로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시작부터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면 학생들의 심리적 반발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혐오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 이슈와 여성 혐오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했고 관련된 글들을 읽은 후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지, 혐오 표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된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인권 수업이 아닌 국어 수업이었으므로 혐오와 관련된 주제 자체에 대한 학습이라기보다는 관련 글을 읽는 읽기 수업의 형식을 이용했습니다. 함께 글을 읽고 독서 문제를 풀 이후 각자의 생각을 짧게 적고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과 진도의 문제도 있고, 혐오 표현 관련 주제만 계속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6차시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리 연구와 준비를 해서 국어 교과의 다른 영역과 혐오 표현 주제를 연결시켜 한 학기 단위로 길게 수업을 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1) 지문 선정

지문은 2018년을 휩쓸었던(?) 유명한 책들 중 제가 당시 열심히 읽고 있던, 그리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홍성수 교수님의 『말이 칼이 될 때』, 초등성평등연구회 선생님들의 『학교에 페미니즘을』 세 권의 글을 수능 독서 지문 길이 정도로 편집하여 학생들과 읽었습니다.

## 2) 수업 한눈에 보기

주제	읽기를 통한 소수자 감수성 기르기
성취기준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배움요소	사실적 독해 능력, 추론적 독해 능력,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차시	6차시
평가 과제	수업 참여, 학습지, 주제에 대한 짧은 글쓰기

### 3) 수업 및 평가 계획 - 주제의 제목은 교사가 임의로 설정

- 차시별 읽기 자료 주제

차시	읽기 자료 주제	평가
1	동성 결혼 금지와 성소수자의 건강의 상관관계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올바른 정의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3	문화 인류학적 시각으로 본 성별 분업 - 2018학년도 수능 완성 지문 수정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4	남녀 성차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별 고정관념의 문제점 - 초등성평등연구회, 『학교에 페미니즘을』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5	혐오 표현의 정의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6	혐오 표현의 문제점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책 전체를 함께 읽지 못해 아쉬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고 관련된 주제를 두고 함께 얘기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차시별 짧은 글쓰기 질문

차시	짧은 글쓰기 질문
1	- 우리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4점)
2	- 인간의 성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성별, 정체성으로서 형성된 성별 중 무엇이 진짜일까요? (4점)
3	-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하나요? 생각의 이유도 함께 써주세요. (3점) -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구분하고 있다면 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4점)
4	- '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별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3점) - '남녀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점)
5	- '남혐'과 '개독'은 나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혐오표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2점)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일까요? 이 사회의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2점)
6	-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쓰던 혐오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장난처럼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혐오를 없애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점)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쓰던 혐오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장난처럼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혐오를 없애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점)

난이도 : ★★★

모든 사람은 다 차별적이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람은 없다. 1퍼센트 차별적인 사람과 99퍼센트 차별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0.00000... 1% 차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혐오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최대한 예방하려고 했다. '김치', '명신', '개이빨'은 농담에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까지 '서 메갈이야?'라는 말이 공격 무섭게 하지만, 내가 시고럽게 실천하면 누군가는 조금 더 용기를 얻고 같이 시고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서하게 세상은 바뀔 것이다. 아차! 아차!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쓰던 혐오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장난처럼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혐오를 없애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점)

난이도 : ★★★

김치녀라는 말을 매우 많이 쓰고 접해온 것 같다. 심심하면 유튜브에 '김치녀 참교육'이라고 검색창에 쳐볼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온다. 그 영상을 보면 전부 여자가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바라다게 될수있을 것이고 남자가 불수하는 영상으로 끝난다.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었는데, 국어시간에 혐오 표현에 대해 배웠고 내가 그런 영상들이 조르는 불쾌해했다. 이런 수업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원!! 대박!

학생들이 쓴 답변들 중 좋은 질문들만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취지의 글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글을 많이 써주어 좋았습니다.

### 3. 수업 이후

수업을 준비하며 저의 수업이 학생들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실에서 대항표현을 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근거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 외로 글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가장 놀랐던 순간은 “선생님 비문학 수업 재밌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혐오와 관련된 이슈는 학생들에게도 궁금하고 관심있는 이슈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혐오표현 자체가 줄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혐오와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히 학생들이 알게 된 이후, “야, 그거 혐오표현이야. 조심해.”라는 말들이 교실에서 종종 들려왔습니다.

조금 치사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며 제가 발췌했던 좋은 글들을 반복해서 읽을 거란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운 지문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험 문제에 인천 쿼어 퍼레이드와 관련된 <보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시험지에 인천 쿼어 이야기를 실리다니! 묘하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6차시 정도의 수업 이후 더 발전된 논의를 가져갈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국어 교과의 여러 영역과 혐오 표현 이슈를 세밀하게 연결 지어 수업 계획을 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지정토론]

##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원 서울효문고등학교 앰네스티인권동아리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송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 상담팀장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교내 혐오표현 근절 캠페인

유지원 서울효문고등학교 앰네스티인권동아리



 **<교내 혐오표현 근절 캠페인>**  
효문 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효문 앰네스티' 

효문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효문 앰네스티'  
유지원

## 교내 인권 동아리 존재의 의미

-2016년 3월, 인권동아리 "효문 앰네스티"

-학교 안에서 인권을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시작함

- 1) 청소년·학생으로서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 2)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보자!

## 2018년 활동 (2) - 여성인권 및 젠더 이슈



**교내 성평등 캠페인 활동 전개**

- 3.8 국제 여성의 날 캠페인 활동
- 교내 축제에서 여성인권 캠페인 진행

## 2018년, 혐오표현 캠페인

- 1) 혐오표현에 대한 강의 (도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원인  
(인터넷의 보급, 불건전한 유행어 확산, 소수자에 대한 무지)
  - ⇒ 교내 혐오표현의 만성적 사용
- 2) 동아리 내 토론
  - '말이 칼이 될 때' 독서,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 정리
  - ⇒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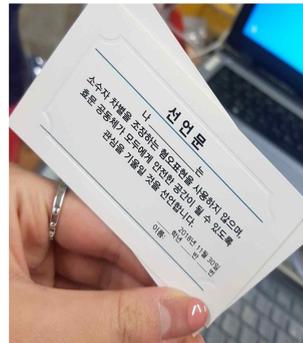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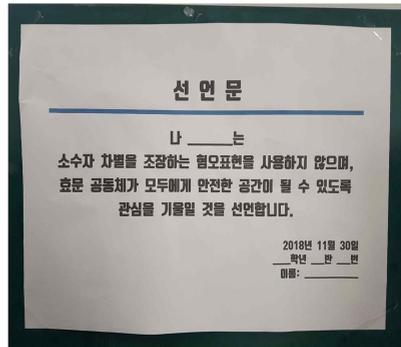


### 캠페인 1일차 (3)



혐오표현의 다양한 예시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왜 문제인지 말해보기

## 캠페인 2일차 (2)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선언문 읽기

## 혐오표현 근절 캠페인 후기

### <배움>

- '혐오표현'이라는 모호했던 개념에 대해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됨
-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언어 속에서 불편함을 찾아낼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이 생김

### <실천>

- "그것은 혐오표현입니다!" 불편했던 말에 이성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
- 지역 성문화센터와의 연계 및 후원을 통해 캠페인의 준비와 결과물을 나눔
- 이를 간 큰 규모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동아리 부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내 인권 동아리의 존재 의미를 상기하게 됨

## 단 한 번도 장애인 비하를 하지 않은 자, 돌을 던져라.<sup>1)</sup>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사람들은 언어로 서로 이어지고 만나고 소통하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sup>2)</sup>

### ■ 언어에 담긴 인권 : 장애와 차별 및 혐오에 대항하기(counter speech)

말은 표현하는 대상에게 일정 가치와 판단을 담아서 소통과 교류의 도구로서 다른 이에게 전달되고 알려져 그 인식을 퍼뜨립니다. 특히 그 말이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집단 전체 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 것일 경우 그 낱말은 사회적인 규범과 힘을 가집니다.<sup>3)</sup> 특히나 ‘차별’과 혐오 비하의 의도를 품은 경우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그것을 듣는 사람의 의미 수용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어떤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그 표현이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표현일 때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파적이거나 편견적이며 반인권의 언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성 신체 부위의 성적 대상화 표현 ‘꿀벅지’(2009)<sup>4)</sup> 물론 단순히 언어만을 바꾼다고 차별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는 데에 앞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 인지 아닌지, 과연 바뀐 언어가 장애인들의 차별적 의식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고려해 볼

1) 본 원고는 여러 곳에서 발표했던 원고와 토론들 발표문을 이번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2) W.v.Humvolt : Gesammelte Schriften, Akademieausgabe, 7. Bd. S. 60.

3)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과 이론을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社會言語學]이라 부른다.

4) 『문제로서의 언어4』 (김하수 공저,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필요가 있습니다.)<sup>5)</sup>

차별어의 사용과 혐오 발언들은 결국 구체적인 차별 행위와 모욕으로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혐오 범죄 및 증오 범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언어 생활은 개인적이고 자의적이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언어 부림의 인권 민감성은 인권 강의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수성은 한 개인에게, 한 기관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속되어야 합니다. 댓글을 달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도 '행동'이고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들은 사회적으로 전염성이 있으며 그 전염성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일차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들과 공적인 영역의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언어의 전염성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단속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었던,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은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 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 천문학자 칼 세이건』

##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병신, 애자, 쫓쫓 그리고 김형수. 이 말들- 용어-은 때때로 종로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시골 장터에서 늘 또 다른 이름처럼 불리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어(語) 들이다.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 들이다. 나에 대한 형이나 동생, 아저씨란 호칭어보다 솔직히 이런 말들이 더 익숙하다. 나를 처음 보고 선배나, 후배라는 생각보다 '어 장애인이군'이런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강하게 밀려와, 나의 나이와 지위로 나를 어떻게 부를 지를 고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길을 느낀다면 비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애

5)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7쪽(임영철, 2008, 국립국어원)

인 당사자의 피해 의식일까? 아니면 나의 오해이자 단정일까? 과연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장애를 더 궁금해할까? 내 나이를 궁금해 할까? 내 이름을 더 궁금해 할까?

알몸이 보이는 목욕탕이나 해수욕장, 또는 어느 버스칸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두려움에 떨며 내 주위를 떠나는 경험이 사라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었다. 나는 병을 옮기는 신체를 가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病身(병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사춘기도 되기 전에 구체적인 생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반응대로 옴이라도 옮기는 전염체의 '병신'인줄 알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러나 한 때 저 용어들은 신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올랐던 호칭어였고 사람들 입으로 쉽게 뱉어지는 말이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말을 듣는 누군가를 욕보이거나, 화나게 하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게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는 우월감을 얻어야 할 때 쓰는 비속어, 욕두문자가 되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구자'와 같은 말을 배운 어르신들이 나에게 하는 반응어들은 대부분 질 좋은 동정심이거나 거친 호기심이거나 그 단어밖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될까?

어릴 적에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늘 시계고치는 기술이나 배워서 시계방이나 차리란 격려아닌 격려를 받고 자랐다. 난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싫었던지 길거리에 시계방조차 쳐다보기 싫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학에서 학생회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신의 종교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선교할 때마다 그동안 고통을 겪으며 병원을 다닌 것들을 그 사람들이 무시한 것이 불쾌했고 기적 운운하는 것도 나에게겐 모욕적이었다. 나의 장애를 내 인생에 멍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내 '장애'를 구원과 기적이 필요한 것으로 단정한 것이 더더욱 받아 드릴 수 없었다.

나에게 가장 민감했던 말은 어느 친했던 친구가 운동 얘기를 하다가 스퀴시 라는 운

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자 대뜸 ‘너에게 스퀴시는 불가능하잖아? 위험해’. 라고 말한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도, 욕두문자도 아니었지만 철들고 나서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는 말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장애를 규정해서 나를 애뜻하게 배려 한다고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내 꿈을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처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은 그 친구가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 잇을만하면 하시는 장애인을 배려 하시는 말들이 더 당사자들을 공분하게 만드는 이유가 공적이익이나 배려심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모욕을 배려심과 동정으로 은폐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널리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명박의 장애인 낙태발언일 것이요, 일상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한 것은 각 종교 설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설교 시간에 하는 발언들일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장애는 기적과 구원의 대상이고 어느 종교에서는 죄이자 업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그것일 것이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잘못 부르는 한센병은 현대에 와서 의학적으로는 단순 전염성 피부병에 불과 하지만 여전히 ‘문둥이’란 단어는 그 어떤 모욕어나 차별어보다 그 힘이 강하다.

문둥병이란 호칭은 단지 당사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파혼까지 당할 수 있는 세대간 차별이나 전지구적인 모욕을 야기한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유엔 친선 대사가 "폐기된 용어를 차별적 의미로 사용" 개탄하면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촉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문까지 발표했을까?

## 단지 모범 답안 : 장애인이라고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다?

90년대에 가장 진보적인 호칭어였던 ‘장애우’란 말이 지금은 장애인을 이르는 말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비대칭

적이며 비굴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먼 미래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하신 것처럼 ‘애자’라는 말이나 ‘병신’이란 낱말들이 모욕어가 아닌 겸손어로 회자될 지도 모른다.

장애인을 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나에게 패션쇼에 나온 연예인이나 받을 만한 눈길세례를 보내고 변정거리는 내 다리가 궁금해서 만져 보는 행위를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로 몸에 살이 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당해보다면 복수심에 불타게 할 만한 강도를 가진 것이다. 나랑 같이 거리를 걷거나 등산을 가거나 데이트를 한번이라도 해본 비장애인들은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없음도 아니요, 활동 보조도 아닌 나와 동행함으로써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고백했었다.

나는 그 시선을 30년 넘게 받으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중증장애인을 나 스스로, 놀리고 쳐다보면서 견딜 수 있는 내공과 보호막을 만들어 왔다.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설 때마다 돌려와 꺾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것에 대한 난감함을 처리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놀리고 측은해하면서 자신의 건강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외치고 싶었다. “네, 저 애자 맞아요. 장애인 맞다니까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지칭할 낱말을 정하고 내 입으로 말하기까지, 수많은 따돌림과 작은 폭력들 속에서 만들어진 수십 가지가 넘는 별명을 적은 일기장과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며 과학실에서 몰래 가져온 청산가리 시약병을 간직해야 했던 내 사춘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아니 언론과 사회가 배려와 격려를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붙여놓은 딱지를 하루종일 눈물콧물 흘리며 하나 하나 떼어내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내 삶, 내 육체가 있었다. 다행히 강한 어버이상이나 비장한 인간 승리를 요구하며 ‘장애’는 굴레이며 패배라고 외치는 교육에 부모님은 사회화 되지 않았으며 나의 장애보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준 사람들도 넌 군대까지 없어서 좋겠다고 펄펄 울면서 부러워 해준 정말 용감하게 솔직했던 친구들이 종종 있었다. 내 애인이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

려워 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없이 자신의 졸업식에, 가족 상견례에 초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이나 금칙어가 아니다. 그 시선과 평가 자체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시스템과 문화이다. 무식한 국가가 모욕죄나 금칙어 등을 함부로 남발하여 되레 모욕의 효과만 높이는 것은 정말 ‘바보’이며 목발도 제대로 못 짚는 헛발질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강하게 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당신의 편견에 도전하라.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 - 미국 드라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 시즌 1기 4부 중에서」

언제 ‘장애인’이라 불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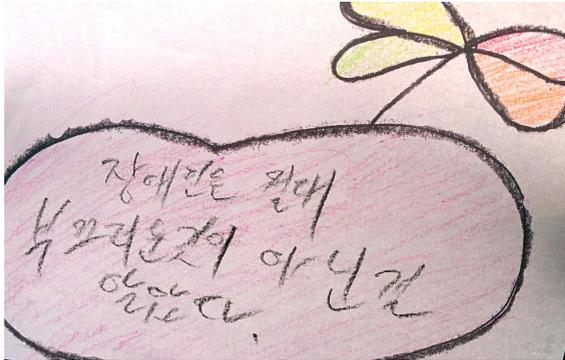
「비평이란 것이 반드시 ‘그러므로 이래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 연역적 전개를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연역적으로 나가면 결국 결론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비평은 싸우는 사람들, 즉 현 상태에 저항하고 현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이데올로기와 의식 )

## 1.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인가’가 문제이다.

어떤 사람을 ‘언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즉 장애인이라 부르는가? 누구의 자녀를 항상 장애인 아들, 누구의 애인(愛人)을 늘 장애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법리적·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사회적인 지원을 한정된 자원으로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해야 할 때, 학교의 특수학급의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즉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개인에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이라 부르기로 약속했다. 모두가 그 약속에 투철했다면 애초에 그 약속자체에는 혐오와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sup>6)</sup> 남녀 화장실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6) 그리스 신화의 외디푸스왕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찢어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장애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판단이라 함은 ‘장애’가 사회적, 개인적 불리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advantage)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릎 수술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장애의 의지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자 Meyerson은 “장애란 한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끝내고 받은 소감문 중에 하나.

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란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불리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류하고 지원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기로 한 과

학적인 진단 대상의 사람이 또는 관찰의 대상이 어느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정적인 지원을 빼앗아 가는 사람으로 공격받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언어에서 역사상 병신(病身)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사실 그대로 어떤 사람 몸에 병이 들어있는 사실 자체나 그런 육체를 지칭하는 의학 용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부름으로서 그 용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와 모멸감 수치심을 주는 힘을 갖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존재하는 실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자의적인 연결 고리였던 언어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힘을 갖는 이유인 것이며 사람을 통제하는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힘을 갖는 순간 언어와 낱말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폭행당한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심리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이 얻고자 하는 효과와 의도를 제공해 준다면 그게 언어폭력이다<sup>8)</sup> 6·70년대는 병신(病身)이란 단어가 8·90년대는 장애인(障礙者)라는

7) 원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이나 미완성이란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병리학적인 비정상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만 병적이란 사실과 어떤 생명체라도 살아가는 환경과 더불어 진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석된 징후들 이것을 비정상이라 규정하는 것이라 한다면 최종적인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하며 장애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지식인의 종말 I.F. suite et fin』레지 드 브레 강주현 역 예문 2001.)

8) 이를 발화효과행위 perlocutionary act라고 할 수 있다.

단어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장애인(障礙人)이란 단어였으며 이제는 상태나 현상을 나타내는 장애(障礙)라는 단어가 '인격'이나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는데 2013년부터 인터넷으로 중심으로 사용되다가 공영 방송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다. '병신(病身)'이나 장애인이란 대상을 이르는 단어가 '병신 같다', '병신 같은 놈'이란 것으로 '너 장애인이나', '애자스럽다'라는 식으로 확장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공간자체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sup>9)</sup> 다시 말해 장애인이란 낱말과 개념이 '차별'과 '소외'라는 언어들과 동일시 될 만큼 그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현존하며 역사성을 띄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sup>10)</sup>

그러므로 장애인이라 분류된 학생들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되거나 약자가 되어 차별이나 모욕이 일어 날 때, 또는 가해자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의도로 언어가 부러질 때 장애인이라 불리어지는 어느 학생이나 법적으로 장애인 학생으로 지정된 학생들은 언어를 폭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류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나보다 약자-사회적인 약자-의 개념이 생기고 경쟁에서 신체적 정신적 우위를 접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나 배제로 드러난다.

9) 이런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라거나 문학적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병신”이라는 말이 장애인 비하인지 아닌지 판정할 언어적 권리가 왜 비장애인한테 있는가. 이는 오스틴을 따라, 그리고 랭턴의 논의를 따라 “병신”이 혐오발언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말 그 자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발화하는 ‘판정발화(verdictive)’인 것이다.

10) 이렇게 ‘장애’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 및 규범을 잘 드러내면서 다수의 행동과 문화로 보여진 것이 2013년 SNS와 언론을 한창 뜨겁게 했던 이른바 대학생들의 J.M 미팅 사건이다. 대학생 미팅을 나온 남학생들의 무리가 장애인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애인’ 버전으로 군대식 자기 소개를 하자 (사실 남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는지, 본인들이 먼저 하면서 당신들도 한번 해봐라는 것이었는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그 남학생들의 상식 밖의 저급한 행동이었다는 1차원적인 분석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보여준다. 그 행위 자체의 대한 해석과 의견들 속에서 ‘장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본질을 은폐하는 강한 권력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교실에서의 권력과 계급, 서열에서 비폭력적이며 민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약속되지 않으면 억압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될 위험은 아주 높다.

그 곳에서 가장 쉽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는 고립되고 자기 방어가 어려운 약한 사람은 학생들이 지위가 가장 낮은 층으로 지목하는, 장애를 갖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적극적인 자기방어가 어렵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상황을 벗어날 힘이 약하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다른 문화적 양식을 가진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 학생 그룹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따돌리게 된다. 학교와 학급에서 이들 약자들을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는 체계적인 대응과 원칙을 하지 않는 채 장애인 이해나 배려만 강조하면 장애인학생의 인권유린은 감추어지고 숨겨져서 장기화될 위험이 있으며 학생들은 장애인 학생은 아예 조직 구성원이 아닌 존재로 투명인간처럼 열외한 채 장애인 아닌 다른 약한 학생을 찾아 괴롭히게 될 것이다.<sup>11)</sup>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인권현장의 경험에서 보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무리 장애인인권교육을 많이 해도 일반적인 학생들은 ‘환자’와 ‘장애인’ 개념을 인권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시적으로 아픈 것’과 ‘영속적인 장애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상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인 공포를 사회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주변 교사나 부모들이 정확하고 인권적인 정보와 지식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이란 이름을 학생 본인이 대부분 선택하는 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나 학생당사자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당연한 요구로서 ‘장애인’이란 이름을 갖도록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11) 우리나라 대표적인 혐오 집단인 사이버 상의 일베는 10대 중반~30대 중반 연령층이 두텁다.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고, 새롭게 유입되는 10대 중후반도 만만치 않다. 30대 무렵부터는 사회진출을 하면서 점점 빠져나간다. 일베 급부상 기점인 2012년 대선 전후,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용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대선 직전에는 21~25세(35%), 16~20세(22%), 26~35세(19%) 순으로 나타났고, 직후에도 22~27세(37%), 16~21세(36%), 28~33세(12%) 순으로 나타났다. (11)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기사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습관' <시사IN> 기획 보도,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에 부처에서 부분 인용.)

## 2. 누가 어느 학생을 장애인학생이라 부르는가?

사례1)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장애인학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침 전교생에게 아침 조례시간 등에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누구누구는 어디어디가 아픈 장애인이므로 만나면 잘 배려하고 도와주라.”면서 공개적으로 장애를 아웃팅하는 경우. →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 특히 의료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일뿐 아니라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은 학교에서는 치료의 목적이 있는 환자가 아니므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장애는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타당하다. 장애인을 아픈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무조건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언어 폭력이다. 이런 자세는 학생들에게 비장애인은 우월한 존재,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을 전이한다. 장애인 학생을 함께 협동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치료하고 돌봐야 할 존재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다. 장애인학생을 지원이 필요한 협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장애인 학생의 위한 특수학급도 ‘게토’<sup>12)</sup>가 되어 버린다.

ex) 통합 학급의 담임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훈육할 때 “너 자꾸 그러면 특수학급에 보내 보린다”라는 언어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2) 당사자나 부모 동의 없이 외부강사 등에게 장애인 학생의 개인정보나 장애 유형이나 장애등급이 적힌 문서를 프린트해서 줄 때. → 그런 언어생활이나 언어부림들을 학생들이 계속 목격한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것을 장애인 학생들이나 부모가 부담스러워 하고 부끄러워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은 장애인학생들을 언어폭력의 대상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서 드러내야 할 때는 부모나 교사나 그 누구나 법리적이며 인권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의학적인 진단명이나 질병이름이나 장애로 개인 전체가 지

---

12)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의 게토란 도시 내 (제한된) 구역으로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이곳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게 하였다.

명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을 때 장애인이라 불러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드물다.

장애인학생에게 '장애'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거나 완전히 수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나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자신의 동의나 준비 없이 교실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타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을 더욱 약자로 만드는 낙인 효과를 증대시키고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하여 오히려 차별 행위를 가르치고 왕따를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하면 할수록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욱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장애인당사자들을 강제로 아웃팅시켜 배제시키는 지침을 알려주는 꼴이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이지만 상대적이며<sup>13)</sup> 한 개인에게 '장애' 문제는 아주 사적인 개인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최고 관리자나 담임선생님부터 학교 보안관 선생님까지 어느 학생을 장애인학생<sup>14)</sup>이라 부르는 것에 신중하며 인권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다른 학생들도 그리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sup>15)</sup>그

- 13) 오늘날의 자폐 스펙트럼 진단체계로 보면 과거 뉴튼이나 아인슈타인은 모두 자폐성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을 테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바로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태초부터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애초부터 발달이 지체되고 소통이 부재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발전속도 인간의 적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 것 뿐이다. 그래서 '발달 장애는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이다. 그들의 기준에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 필자의 지면에서도 그들이 발달 장애인이었다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었다가 그들이라 불리기도 한다. 내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름이 좋은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엑셀도 못하고 카카오톡도 못하는 대학교수는 이 스마트 시대에 발달 지체, 학습 부진이라 부르면 안되는가? 필자는 문자로 잘 못보내는 아버지와 나날이 소통의 부재와 단락을 느낀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학력 평가를 일삼고 사람을 평가하고 한계 짓는 것이 정말 非발달스런 일이다.
- 14)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와 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언어와 각종 모욕과 혐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障礙)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지금도 우리 언어 생활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障礙)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변화하든지, 장애인이라던 단어 자체가 장애(障礙)라는 단어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쓰이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는 계속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으로만 인정받고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애(障礙)'만이 부각되고 설명되어지는 용어라면 그 뒤에 어떤 낱말이 붙든 그것은 차별과 소외를 위한 낙인(烙印) 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의 의견과 관계 없이 함부로 누구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늘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말에서 '장애학생'란 말도 장애를 일으키는 학생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15) 여성 특수교사나 여성 특수교육보조인력에게 남성 장애인 학생의 신변처리를 공개적으로 무조건 시키거나 요구하는 것은 비장애인 학생에게 장애인 학생들을 성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리고 각 교육현장은 이제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언어 폭력을 분명하게 장애인에게 저지르는 차별 행위이자 혐오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sup>16)</sup>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체화된 혐오 범죄를 만나게 될 것이다.<sup>17)</sup>

### 3. 왜 장애인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가?

현재의 장애인학생에 대한 모든 폭력은 과거 2000년 불결한 성관계, 장애아를 낳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KBS 방송에서 감행한 개그맨 이창명 씨의 발언과 장애인 낙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설화와 함께 2000년 초부터 게시판에 달렸던 초등학생들의 ‘애자’라는 놀림말의 사용, 그리고 장애인들을 아무데서나 공개적으로 목욕시킨 정치인들의 행동과 더불어 매주 장애인은 절대 함께 웃을 수 없는 개그프로그램<sup>18)</sup>이 교육시키고 길러낸 사회적 양육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장애인학생에 대한 모든 폭력을 이런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낸 범죄라고 진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근절되거나 예방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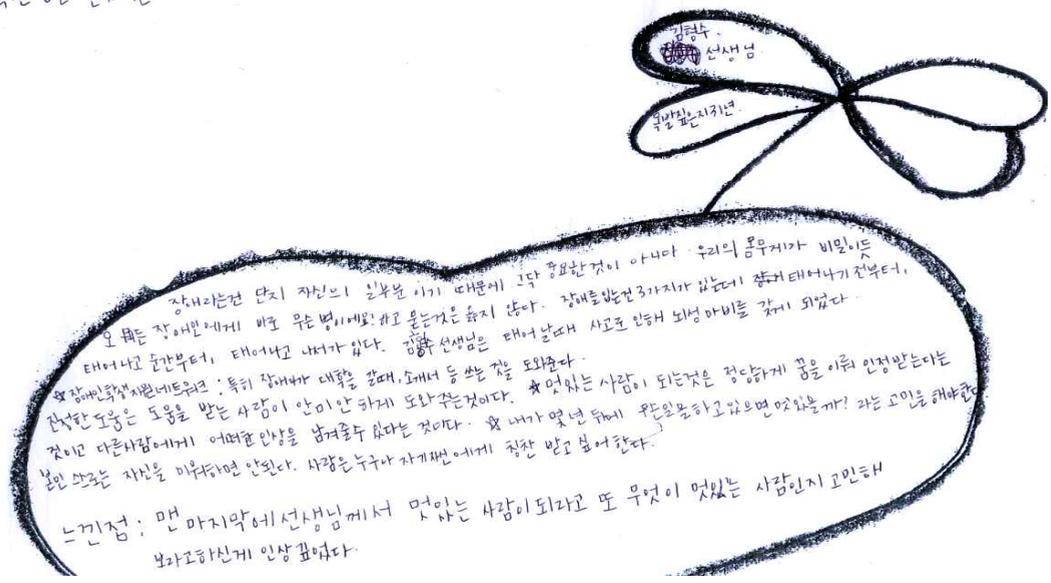
- 
- 16)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 (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7)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들에 의해 5일간 감금되어 집단 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 씨(만 20세)는 올해 경북 경산 H대학교 관광항공호텔과에 입학했다. 그는 중학생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아 수술 후유증으로 15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수술 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이라 장애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A 씨는 남들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올해 4월부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과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 씨에게 퀴즈를 내고 맞추지 못할 경우 “너 맞을래? 치킨 살래?”, “너 맞을래? 피자 살래?”와 같은 위협적 행동으로 A 씨에게서 돈을 갈취해왔다.(중략)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지난 6월 23일경.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2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속된 말로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누구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이라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 이후 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자 H대는 학교 누리집에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학교 측의 일방적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중략)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인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교육의 폐해와 차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내포한 사회문제이며 더불어 대학교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면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을래? 치킨 살래?”…대학 기숙사에서 발달장애인 감금·폭행, 인터넷 신문 비마이너 기사 2015년 7월 1일자 기사)
- 18)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의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치부하고 그 자신의 장애가 인격으로 동일시됨으로써 자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코메디언의 말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걸 볼 때 함께 웃어 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의 과거 장애인비하발언들을 과거 단순한 말실수로 사과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더라면, 언론들이 장애인 관련 기사를 쓸 때 과학적으로 올바르며 인권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다더라면, 다른 모든 대상들에게 ‘극혐’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면, 초·중고 교육책임자들이 장애인 인권교육을 비디오 한 편 방영해주는 전교생 에티켓 교육 정도로 가볍게 생각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것으로 제대로 교육했다면 작금의 장애인학생에 대한 언어 폭력을 가볍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대중의 공분을 산 혐오 범죄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폭력이 가해자의 우발적인 실수로 빚어지는 일이 아님을, 성폭력의 폭력성이 피해자가 느끼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익히 깨닫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의 사회적 관계를 개인간의 문제로 오랜 세월 고착시킨 덕분에 지금 얼마나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교육 현장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언어 폭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 책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더 큰 갈등과 더욱 심각한 지성인들과 엘리트들의 장애인 혐오 범죄에 직면할지 모른다.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프는 <인정투쟁>에서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사랑'도 인정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사랑받지 못하면 타인의 심리적 지지와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실되고 불안하다.<sup>19)</sup> 개개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조직 어디나 그러하지만 교육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그 목적과 단체 유지를 위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관계를 무한대로 보장할 수 없고 욕구와 관계가 제한된 공간과 권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계급과 서열이 형성되기 너무나 쉽다. 그리고 그 계급과 서열, 권력에 따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열과 권력의 원칙이 인권의 원칙이 아닌, 폭력의 원칙, 힘의 논리에 따르는 것에 있다. 교육 현장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교실의 원칙이 인권의 원칙을 전부 공유하고 공감하지 않는 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각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실 내의 서열화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법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해놓는다고 용이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교묘하게 내면화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높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실은 오랫동안 인권에 원칙이 아닌 다른 가치로 학생들을 계급화했고

19)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기사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습관' <시사IN> 기획 보도,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에 부쳐에서 부분 인용.

평가해온 반면에, 이렇게 부끄러운 위협을 직면하여 인권의 가치를 내세운 것은 ‘학교 폭력’이 뜨겁게 이슈화된 2~3년, 장애인 문제로만 보더라도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때로 채 5년을 넘지 못한다.<sup>20)</sup>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자신의 구성원 중에서 어느 누구를 밀쳐내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 어느 누구가 어느 때는 나환자나 페스트 환자였고, 또 어느 때는 광인이나 부랑자, 노숙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비정규 계약직을 전전하는 무능력자이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 사회의 권력 테크닉이며, 도덕 지수일 것이다. 각 개인이 인권적으로 협동을 해야 인권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과 학교와 사회가 구현된다. 어느 한 개인도 인권적이어야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가치와 그 구현을 위하여 협동해야 인권은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학년 6반 윤재원



장애인학생의 통합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서는 학교의 최고 관리자 교장, 교감부터 학교 보안관 선생님까지 모두가 장애인학생의

20) 인권위가 2014년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통합교육과 인권을 위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위해 협동해야 하고 서로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지켜봐주고 챙겨 주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 99.99%가 인권적이라고 해서 그 학교와 교실이 인권적이라고 할 수 없다. 차별과 인권 침해는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소수 0.01%에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이다. 차별과 모욕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과 유사한 힘을 가지고 있다. 모욕어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학교 전체를 그러하게 전염시킨다.

각 개인에게 어렵게 각성되고 키워진 인권감수성이 인권의 태도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인권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예체능 과목과도 같다. 그래서 그동안 인권교육은 적금과 저축이며 가치투자와 같은 중장기 투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통합 교실의 지휘자인 통합교사가 이러한 인권수업에 지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당신들의 필요요구도 반영하며 이런 수업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인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배우며 교사가 스스로 인권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지휘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깨달아 변화하고 실천해야 학생들이 깨닫고 변화하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은 사랑과 배려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인구학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반드시 장애인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가 평생에 한번은 반드시 '장애'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이를 충분히 지원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일단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교사들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은 '동지애' 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비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비장애인 학생들의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 힘든 일이다. 교육 현장 구성원 모두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장애인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부담을 다른 학생의 피해라고 말하고 장애인학생의 지원을 사랑과 배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언어 폭력의 시작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학생답게 발달 단계에 맞는 문제행동을 하고 교육 당국은 이들이 어울려 공부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언어 폭력의 문제도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 후기 이덕무 수양서 〈사소절(士小節)〉 중에서)

## 청소년 성소수자 ‘자기방어 워크북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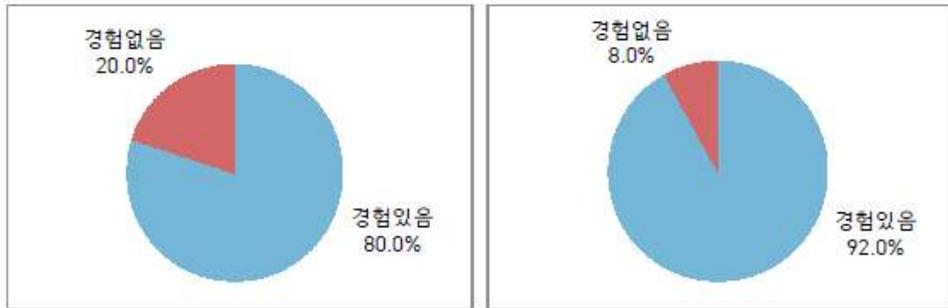
송지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상담팀장

### 1. 학교안 혐오표현 실태 -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경우

이혜정님의 발제문에서 언급되고 확인할 수 있듯, 한국에서 학교를 경험한 청소년들 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가 성소수자를 향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가 내 주변에는 없다고 상정됩니다. 동시에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 성소수자 혐오표현 등은 더욱 공공연하게 발화될 수 있으며(이 공간에는 없으니까), 당사자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더욱 어렵고(나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는 또래 문화에 편입되기 위해 당사자 스스로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동참하는 경우도(자기부정)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성소수자 혐오표현은 또래 간 문화를 넘어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토론이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동성 간의 신체접촉은 학칙(혹은 교사의 꾸중)으로 규율됩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교사와 교직원 등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발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비해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성교육적 관점과 인권교육적 관점 모두)은 정규 학과과정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학교에 속해있는 기

간이 길면 길수록 혐오표현 피해는 누적, 심화될 뿐이며,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림 3] 교사로부터의 일반적 혐오 표현 경험

[그림 4] 다른 학생으로부터의 일반적 혐오 표현 경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14)]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이하 '평동')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실태조사 결과 이후로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 내 혐오표현 경험 실태는 꾸준히 수집되고 있습니다. 평동은 2017. 9. 일주일간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한 성소수자 혐오표현 피해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64명의 청소년들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직접 적어준 혐오표현 경험사례와 당시 느꼈던 감정을 몇 가지 추려 옮겨 보려 합니다.

지역/학년/정체성	들었던 혐오발언의 내용	당시 느낀 감정
경기/고3/호모그레이 에이데미섹슈얼	반친구에게 제가 친구와 놀고있으면 "와 재네 레즈가봐."라는 식으로 서로 못놀게 하는 식으로 혐오하고 수업자료로 동성끼리 붙어있으면 "오 레즈레즈~" 이라고 레즈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레즈?ㅋㅋㅋ" 이러면서 희화화하는 등	괴롭고 내가 왜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숨기고 혐오발언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다
고2/경기/젠더플렉스팬섹슈얼	(여고입니다) 반 친구 A가 소위 '여성스럽지 않게' 기침하자, B가 너 여자 아니고 남자 아니냐. 고 하였고, 그에 A가 "나 트랜스젠더잖아."라는 식의 발언. 나 레즈야. 혹은 너 레즈야/라며? <라는 식의 장난과 그에 따르는 질색하는 반응들.	교내에 커밍아웃을 한 상대가 몇 없어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웃팅에 이은 최악의 상황들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심정 또한 참담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나의 존재가 어떠한 형용사처럼 쓰이는 기분이라 매우 기분이 나빴다.

지역/학년/정체성	들었던 혐오발언의 내용	당시 느낀 감정
고3/경북/양성애	친구와 점심시간에 수다 떨고 있을 때, 만일 가족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면 연을 끊을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질색하면서 더럽다며 연을 끊을거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놀다가 성소수자 관련 화제가 나오면 더럽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반응이 절대다수입니다.	애들한테는 나도 더럽겠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같이 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싶었습니다.
중3/경기/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트랜스젠더 얘기가 나오자 '트랜스젠더가 뭐냐' '트랜스포머냐'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성끼리 조금만 친한 모습을 보여도 '레즈냐' '게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선 '고자'라는 혐오 위당을 웃으라는 듯이 사용하시곤 '왜 안 웃냐'라는 말을 하셨고 트랜스젠더 제자가 찾아오자 더럽고 무서워서 피했다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제 존재는 처참히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과서에선 항상 사회적약자에 대한 평등과 자유를 주장했지만 사회적 약자인 저는 항상 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고3/경기/양성애	남선생님 둘을 엮어 한분은 정장예복을 한분은 웨딩드레스를 입혀 결혼식하는 장면을 그림(만화)로 묘사하고 개그의 소재로써 반 전체에 걸여놓고 다같이 웃게 하였다.	나혼자만 정말 탄세계에 사는 기분, 아무도 이런 만화를 보고 조롱하는것에 기분나빠하지 않는것에대해 의문을 가지고 참담해짐.
고3/부산/레즈비언	1. 친구의 게이 목격담. 그 애는 버스에서 잘생긴 훈남 둘을 보았는데 게이였다. 그래서 기분이 몹시 더러웠다, 라고 카톡 단체톡방에서 말했습니다. 2. 마초적인 같은 학원 남자애가 조곤조곤 말하고 가려진 제 지정성별 남성 게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게이냐? 으 더러워. 말투 좀 고쳐라 진짜 소름돋는다. 3. 저는 한때 투블러이었는데 그때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 레즈냐. 그 머리 좀 어떻게 해 봐. 여자애가 여성스럽게 하고 다녀야지.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게 한편으로 신기하면서 그 발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고3/서울/무성애	동급생으로부터 윗 학년에 레즈로 추정되는 학생이 두 명 있다, 왜 그러는 지 모르겠다. 레즈는 더럽다 라는 말을 들었다. 동급생 - 내 주변에는 동성애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더러워.	웬만한 혐오발언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뒷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다.
경남/고3/범성애자	학교애들이 저한테 더럽다고하거나,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거나 저랑 친한친구랑 저랑 사귀는거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교회에 다니는 학교친구가 제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찬송가를 부르는등의 경험을 했습니다	무력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했고 대학교에 갔을때나 사회생활을 할때에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역/학년/정체성	들었던 혐오발언의 내용	당시 느낀 감정
경기/고3/양성애자	모르는 남자애에게 너 양성애자면 쓰리섬도 가능하겠네? 라고 들은적도 있고,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 어차피 남자랑 결혼하겠지 뭐.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환멸이 나고, 수치스럽고, 화가나고, 이런 혐오에 항상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정말정말 슬펐습니다
충남/고3/판섹슈얼젠더플루이드	선생님에게 동성애는 부자연스러운거니까 동성결혼은 상관없지만 입양은 안된다고 못박는 말을 들음. 이어서 자기가 '잘 아는데'(비퀴어에 어린 아들과 부인이 있는 선생님ㅋㅋ..)동성애자가 변태적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무력함을 느낌. 주변에 꽤 많은 퀴어 친구들과 함께하며 안주하고 산 내가 바보 같다.
광주/중3/범성애자	수업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중략) 워든 예를 들 땐 남자와 여자로 듭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을 게이 또는 레즈로 표현해놓고 애는 이상한 애다. 다른 건 다 이런식 이런식으로 만나는데 애 혼자 병신처럼 따로 논다. 뭐... 이런식으로 칭하며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역겹고 제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아주 기분이 안 좋더군요.
서울/중2/양성애	중학교 1학년 초 당시 교무부장이던 과학 선생님께서 수업 중 "동성애 하는 놈들은 다 때려죽여야 한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여름 쯤 동일한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이 원소들은 트랜스젠더들 같이 이상한 원소들이야" 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 수업이라 외부강사께서 들어오셨는데, 대중가요를 소개하고 강의하시던 중 뮤직비디오에서 퀴어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던 친구가 교감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려 교감선생님이 외부 강사님을 갈구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가정선생님께서 청소년기의 성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너네들이 막 동성한테 설레면 이상한거지"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고3/서울/트랜스젠더퀴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적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에 다닐 적 윤리시간에, 동성혼의 주제가 던져지면 '더럽다, 똥꼬충이다'라며 조롱하는 아이들과 방치하는 선생. 전교생이 듣는 성교육시간에 강사가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강간을 당해서 되는 것이며(심지어 홍석천씨를 직접적인 예시로 들며), msm이 에이즈를 퍼트리고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한것. 이를 교장에게 항의하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도 동성애자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와서 결혼해서 잘 산다'며 받아주지 않던 교장.	이 사회에 드러나면 안될것을 드러내기도 당당한 인간을 봤을 때 느껴지는 소름끼침과 역겨움. 내 자리를 한번 더 확정한것 같은 무력감.

지역/학년/정체성	들었던 혐오발언의 내용	당시 느낀 감정
서울/고1/양성애자	선생님도 수업시간에 취향중중이라면서 희화화 하신다. 또 키츠해링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고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시는 등 마치 동성애자는 다 에이즈 감염자인것 처럼 말했다.	더럽다. 근데 하도많이 들어서 이제 무감각해질 정도다.
고2/서울/레즈비언	고등학교 과학선생님께서 전자를 설명할때, +와 -가 만나는 것을 정상, +와 +가 만나는 것이 비정상이라 표하며 그것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정상,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은 비정상이라 칭했다.	너무 싫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수궁하는 반 아이들이 무섭기도 했다.

이해정님이 학교안 혐오표현 실태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혐오현상이 또래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 역시 혐오를 당하고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 분위기에 동조하면서 혐오현상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평등의 실태조사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

-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웃어 넘겼다. (그 후의 폭풍과 아웃팅들이 무서워서)
- 대다수가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게 대응할 수 없었다.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진지충' 이 되거나 게이, 레즈로 몰아 혐오와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
- 혐오발언을 내뱉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친구들이 "어... 그래..." 하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자칫하면 아웃팅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 아무것도 못 하고 나도 포비아인 척했다.
- 저는 머리가 짧고 소문이 있었는데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하면 저에게 레즈냐고..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화내며 아니다 라고 거짓말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대응에 나아간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의견에 동조하는 친구나 지지집단, 교사 등 조력자가 없어 포기하거나, 대응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거나, 대응했더니

오히려 더 심각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제에서 지적한 것 같이,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혐오표현과 혐오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해결 방안, 대응 체계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를 크게 만들까봐’, ‘말해도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대응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으로 용기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학생도 있었으나, 이후 더욱 심한 언어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혐오 발언을 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인 상황보다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혐오 발언을 한다. **그 학생들은 교실에서 목소리가 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이다.** 반면에 나는 그 학생들과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용히 지내는 타입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라면 그러면 안된다고 확실히 말했겠지만, 비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다.** 또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은 정말 몇 명 없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 상 조용히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
- 의견에 반박했으나 **다수의 의견에 의해 매몰당함.** 오히려 훨씬 더 큰 폭력을 당함
- 학교엔 정말 좋은 인권의식을 가진 친구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호모포비아 존재하여** 목소리 내기가 어려웠으며 무서웠습니다.
-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혐오발언을 들은 즉시 아랑곳 않고 반박을 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그냥 무시하며 넘어가셨고, 가정 선생님과는 수업중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쿼어포빅적 발언을 쏟아내시고 저는 그 내용에 반박을 했는데, 끝내 사과는 안하셨습니다. **수업중 일어난 일이라 저에 관해 안좋은 소문들이 퍼졌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다른반 수업중 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지지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며 법적대응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려 설명을 했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대답이 많았다.
- **혐오발언을 할때 혼자서가 아닌 여럿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을때 반박하면 너 레즈냐? 라고 말할게 뻔했기 때문에 그런말을 듣고싶지 않았다.
- 수업시간에 지나가듯 성별이 뭘 상관이냐고 해봤지만 **자연스럽게 무시당함..**
- **아이들에게 제대로 제 성적 정체성을 말했고** 몇몇 아이들은 수긍했으나 남자아이들은 개더럽다 등의 표현을 쓰며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 **그 자리에서 학생에게 커밍아웃을 하였고,** 그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
- 다수의 아이들이 호모포빅적 발언과 행동을 즐긴다. **난 그리 영향력 있지는 않다. 적어도 지금 괜히 내가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버릴까봐 겁난다. 난 힘이없다. 날 도와줄 사람도 없다.**

## 2.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방안 - 청소년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들 /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

### (1) 청소년 성소수자 자기방어 연습의 필요성

평동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위기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호소하는 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우울, 무기력,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고 자해, 자살시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의 배경 중에는 청소년기에 가장 오랜 시간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배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며 2018년, 평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평동법률식당’을 기획해 총 8회/79명의 청소년 성소수자와 만났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혐오폭력의 의미를 정의 내려 봄으로써 혐오표현이 왜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학교 등에서의 혐오폭력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비/공식적 수단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청소년 성소수자 자기방어 워크북의 제작

2018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의 기록과 평동의 상담기록, 차별실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9년에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게 되는 인권침해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워크북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혐오표현에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중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 ‘당황해서’, ‘함께 대항해줄 친구가 없어서’ 등의 답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워크북 활동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워크북이 완성된 후, 2019년 8월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워크북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협·오·표·현

하나. 위 상황을 읽고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두울. '혐오표현'이 될까요?

## 자기방어 연습하기 두 번째



school\_rainbow

최근 활동: 3분 전



땡땡!

나는 지금심의 표현으로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구입한 무지개 색의 멋진 버튼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내 가방을 본 학교 친구 몇 명이 내가 '레즈'라며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고, 내가 친한 친구랑 손을 잡고 걸어가면 "재네 사귀나봐, 더러워~"라며 수군거리기도 하고 있어.

그래도 애들이 수군거리는 건 내가 무시하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어제 화학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 원소들은 트랜스젠더 같이 이상한 원소들이야"라고 말하시는 거야. 애들이 다 깔깔 웃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협·오·표·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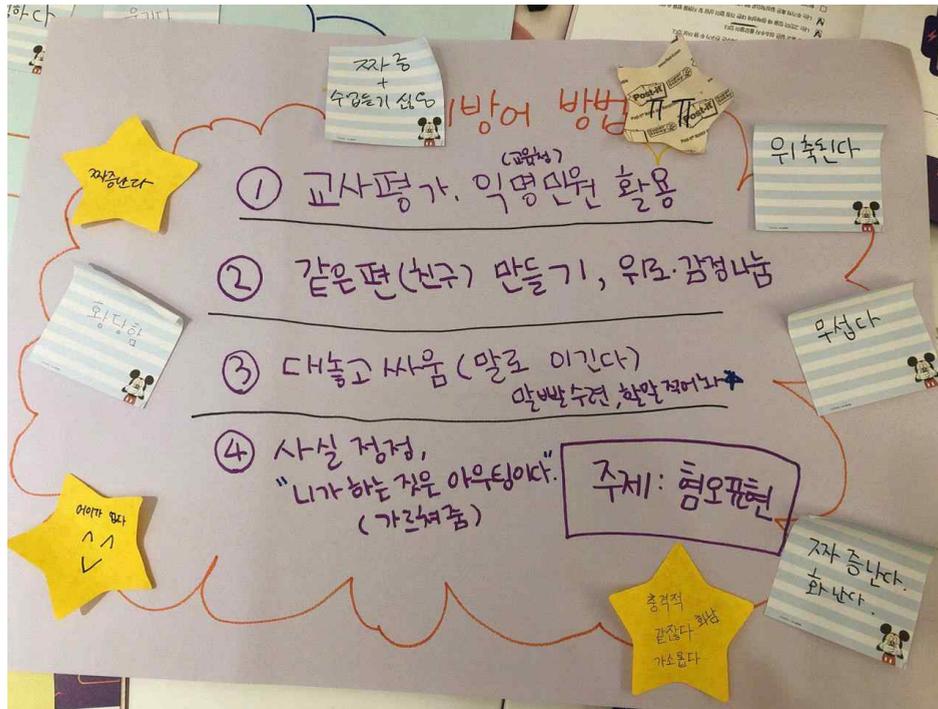
**하나.** 나는 이런 경험이 있나요? 상상해 본적 있나요?

**두울.**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맞받아치거나 대응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세엣.** 내가 같은 반 친구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엣.**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지개 자기방어 방법을 적어봅시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무지개 파워 나를 지키는 워크북) 혐오표현 파트/땡동(2019)]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무지개 파워 나를 지키는 워크북〉 혐오표현 파트 활동모습]

### (3)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소수자 인권교육,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

청소년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힘,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뿐이며, 학교에 만연해 있는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편 평동에는 학교내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적절한 교육을 하고 싶지만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나는 황당한 질문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가 제정한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포함된 이후로는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교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고,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이 직접 교실에서 학생들과 시도하셨던 인권교육의 내용, 학생들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습니다. 혐오표현에 고통 받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교사의 존재는 그 어떤 법제도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더불어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소수자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를 넘어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평등에서도 2018년 학교 안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의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이라는 가이드북을 펴내고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 평소에 잘 맞받아치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면 확실히 이야기한다. **윤리 시간에 성적 소수자에 대해 수업을 했고,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서 괜찮았다. 그리고 윤리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때때로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시키시는데 그 수업에서는 "동성애는 나쁘다, 질병이다, 죄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였다.** 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 안되며, 세계 보건 기구의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된지 오래되었다."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합 12년만에 고3 처음으로 윤리시간 성소수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몰래 가서 수업 진도중 성소수자 파트부분을 자세히 수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확실히 학생 입장인 저와 선생님의 전달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을 도움삼아 반 친구들이 성소수자 비하발언을 할때 애들아 우리 수업때 배웠잖아 하며 대응을 했습니다.**

### (5) 성소수자 혐오·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응하세요

성소수자 혐오·차별적인 행동은 여러 형태와 규모로 발생합니다. 편견이 담긴 말, 욕설, 괴롭힘,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호모섹시'나 '레즈'와 같은 호모포비아적인 욕설을 학교에서 자주 들으며,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주기적으로 당하는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 높은 결석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입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 혐오적인 욕설, 따돌림, 괴롭힘을 목격한다면 침묵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으며, 성소수자 혐오적인 말과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리는 효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 [ 욕설, 따돌림,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 ]

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적인 욕설, 따돌림,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해보세요.

#### 1. 욕설, 따돌림, 괴롭힘을 즉각 문제 삼으세요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문제 삼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교실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침묵한다면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2. 성소수자 혐오·차별적인 행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본 것을 묘사하고 행동에 이름을 붙이세요. "지금 방금 '호모'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고 욕이에요. 만약 주위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3.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드세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과 행동을 문제 삼았다면 이것이 인권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곧바로 말지 나중에 할지, 공개적으로 할지 개인적으로 할지를 결정하세요. 다른 학생들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문제라는 사실을 꼭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전학년 교육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무지개 길 찾기> / 땡땡(2018)]

### 3. 마치며 -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근절,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며

땡땡법률식당이 시작된 해의 5월, 대전의 모 여고에 다녔던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날까봐,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교실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견디고

있을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피해구제절차의 확대보다 더 시급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혐오적인 분위기를 바꿀 교육, 학교문화 조성임을 절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야기되고, 이에 대한 인권교육 방법이 논의되는 자리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노력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널리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이 학교장이나 동료교사들, 학부모 민원에 의해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을 현장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포함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소수자 학생들의 고통 호소에 직접적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혐오표현 없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 (상황1) 욕설로 인지되지 않은 혐오표현이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

음악 교과시간을 다녀온 반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와 ‘왕 음악띠’라는 모듬 이름이 괜찮은 건지 물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음악 교과선생님이 모듬별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전 모듬 이름을 4글자로 정하라고 했는데, 한 모듬이 ‘왕 음악띠’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다. 음악 선생님은 ‘앙 기모띠’라는 말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대강 유행어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신 상황이었다. 대략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딱히 의미를 알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저 ‘유행어’를 바꿔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다.

### (상황2) 정체성을 지칭하는 표현 자체를 욕설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체육 교과 시간이 끝났는데 아이 한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몸을 치대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남자 아이에게 ‘게이 같다’는 말을 해 꾸중을 들었다고 했다. 게이는 아주 좋지 않은 말이라서 그런 말을 친구에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아이의 반성에 ‘게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표현이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 (상황3) 혐오표현이 유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얼마 전 친구에게 ‘응~ 니엠’라고 한 아이를 꾸중하려다 그 말을 들은 아이로부터 자신은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재미있으니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말을 해 보았지만 당연히 교실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교사가 반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보니 욕설로 보이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혐오표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뜻을 모르는 표현이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혐오표현(‘보이루’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면적인 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혐오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경우)의 경우 허용되기도 한다. 교사가 뜻을 아는 경우에도 ‘욕설’이나 ‘외설적인 면’이 없는 표현의 경우 창의적이란 이유로 혐오표현, 혹은 혐오표현에서 파생된 표현들이 허용되기도 한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흔히 선택하는 ‘당사자의 속상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접근이지만 혐오표현이 ‘유희’의 측면을 가지게 된 상황에선 힘을 잃기 쉬운 설명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있어도 속상하지 않으면 혐오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가? 속상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는 혐오표현을 해도 괜찮은 걸까?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단계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수업은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바른말 고운 말 쓰기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형태의 수업의 경우 새로운 혐오표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혐오표현과 그 파생 표현을 인식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금지어 리스트가 끝없이 늘어나다보니 아무도 리스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쉽다. 또 ‘장애인’, ‘게이’라는 정체성 표현 자체를 혐오표현으

로 지정해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바른말 고운 말 쓰기 수업의 경우 욕설로 인식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동성애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살펴보자. 어디에도 욕설은 없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돕자는 취지의 ‘바른 말 고운 말’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말은 엄연히 혐오표현이다.

뉴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학생들이 혐오표현을 접하는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결국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혐오표현이 설령 즐거움을 주더라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공동체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혐오표현이 당하는 이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해볼 필요가 있다. 또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수업예시 1. 아동에 대한 차별을 통해 혐오표현의 정의와 악영향 알아보기 (5-6학년 : 혐오표현 사용이 많은 학급의 경우 활용 가능)

- ‘초딩’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땠나요?
  - 게임을 하다가 실수를 했더니 ‘초딩이냐?’라고 했다. 무시 하는 말로 들려 속상하고 화가 났다. SNS로 아이돌 팬들과 교류하는데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들기자 ‘\*\*님 초딩이라 블락 합니다.’란 메시지와 함께 차단당했다. 내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등.
- 초등학생을 초딩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거나 모임에 끼워주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유치하며 방해가 된다.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등
-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 내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 초딩 소리를 듣기 싫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한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게 된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게임이나 SNS를 그만둔다. 등.

- 사회적인 약자를 놀리는 말이 일상적인 곳에서 자신이 바로 그 놀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도록 막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만드는 말을 우리는 ‘혐오표현’이라고 부릅니다.

■ 노키즈존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말한다.

■ ‘노키즈존’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곳은 어린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어린이는 방해가 되고 시끄럽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어린이가 특정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해도 괜찮다.

■ 어린이들 중 실제로 시끄럽고 남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치는 아이가 있을까요?

-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다.

■ 모든 어린이가 시끄럽고 남을 방해하고 사고를 칠까요? 지난번에 그런 행동을 한 어린이라고 해서 다음번에 꼭 똑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모든 어린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행동한 아이라고 해도 다음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양전히 있을 수도 있다.

■ 어른 중에는 시끄럽고 남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본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 몇몇 어른이 남에게 시끄럽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어른을 금지하는 ‘노어른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몇몇 어린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전체 어린이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해 차별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혐오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동의 경험으로부터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의미를 끌어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평소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는 아이들, 즉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접속하는 아이들의 경험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일수록 역설적으로 아동에 대한 혐오표현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관찰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깊숙이 속해있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소수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힘을 가진 언어 표현을 흉내 냄으로서 강자(성인 남성)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신태일의 여성혐오 표현을 보고 따라하는 영상을 올린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들은 신태일로부터 '초딩 참교육' 등의 콘텐츠를 통해 혐오당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은 여성혐오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흉내 냄으로서 '형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 수업에서 2. 집단 간 대화를 통한 이해 경험 (성별간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6학년 학급)

집단 간 대화는 반 구조화된 집단 안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집단 구성원은 여자 대 남자, 성 소수자 대 이성애자와 같이 서로 갈등이 있어 온 집단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참여자로 구성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편견은 '내집단'과 '외집단' 사이의 편향으로 인해 생겨난다.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하고, 자신과는 다른 외집단과의 차이는 최대화하려고 한다(Jones, 2004). 이러한 내집단-외집단 간의 갈등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협동하는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권위자에 의해 지지받을 필요가 있다. (Allport, 1954).

단계 1 : 참여자들의 기대와 목표 알기, 대화와 논쟁의 차이 알기, 4가지 대화 기술(말하기, 듣기, 앵무새말하기(재진술하기), 반응하기) 연습하기, 나의 정체성 탐색하기 (2차시)

초등의 상황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두 집단은 여자 대 남자다. 특히 재미있었

던 것은 동일한 집단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남학생은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핑크색 반 티셔츠’를 입거나 점심 놀이 시간에 ‘걸그룹 노래’를 듣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했다. 여학생은 여자이기 때문에 ‘얌전해야 한다.’, ‘조신해야 한다.’, ‘예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남학생들이 과하게(?) 여자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즉 여자다움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한 것과 달리 여학생들은 여자답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율을 이야기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 단계 2 : 대화 규칙 정하기, 차이점과 공통점 탐색, 내가 상대 집단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 이야기하기,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하기, 내가 다른 집단에게 이해받고 싶은 점 이야기하기 (4차시)

두 집단은 서로에 대한 공통점으로 노래 듣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체육시간을 좋아했으며 체육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학급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상대 집단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이야기 할 때 ‘혐오표현’의 의미를 탐색하며 아동에 대한 혐오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남학생들은 여자아이들이 ‘이기적이고 김치녀같다.’란 의견을 이야기하며 이유로 점심시간에 남자들은 싫는데 계속 걸 그룹 노래를 트는 문제와 반티셔츠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정한 것, 체육시간에 배려만 받으려고 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모든 여학생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찬성했으며 남학생 중에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또 핑크색 티셔츠가 선정된 것은 남학생들을 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수결로 결정된 것임도 인정했다.

많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폭력적이고 장난친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학생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친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릴 때에는 ‘폭력’으로 생각하면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때릴 때에는 ‘장난’으로 생각해 억울하다는 남학생들의 의견을 인정했다.

단계 3 : 논쟁이 되는 주제 이야기하기 (체육 시간의 차별 문제, 반 티셔츠의 색깔 고르는 문제, 점심 놀이시간에 들을 음악을 고르는 문제)

단계 4 :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하기 (4차시)

3-4단계의 경우 남학생의 수보다 여학생의 수가 많은 학급이다 보니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대부분의 결정이 여학생들 위주로 꾸려진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반 티셔츠의 경우 ‘남자가 핑크색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편견이었음을 확인하고 많은 친구들이 입기를 원하는 색으로 티셔츠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다른 반 친구들이 ‘핑크색’을 이유로 남학생들을 놀릴 경우 어떻게 함께 대응할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점심놀이시간에 곡을 트는 문제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해 1위인 곡을 틀어주는 형태가 문제가 되었다. 여학생들이 사전에 논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곡에 몰표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 정정당당하게 하더라도 1위곡만 틀어주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람수가 많은 여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다들 공감했다. 따라서 일주일간 원하는 곡을 모아 놓고 랜덤 뽑기를 통해 곡을 틀어주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하였다.

체육 시간에 ‘남학생이 여학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경우 ‘체육을 잘 하는 학생이 잘 못 하는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약속으로 바꾸었다. 또 체육을 잘 못하는 남학생을 무시하거나, 체육을 잘 하는 여학생을 놀리는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두 집단이 대화를 통해 자신이 상대 집단에 대해 품고 있던 마음이 ‘모든 아동이 시끄럽고 방해가 된다.’라는 어른들의 편견처럼 몇몇 사람의 특성을 과대표 해 만들어 진 것임을 이해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또 이 과정을 통해 대화 자체가 오가지 않았던 두 집단 사이에 대화의 오가게 된 점도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다문화인권교육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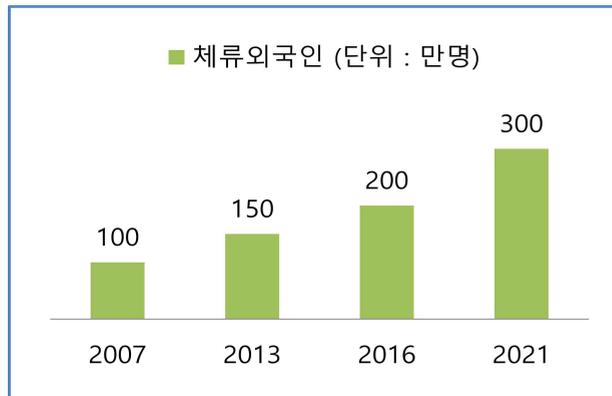
##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다문화인권교육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 학교안 이주민에 대한 혐오 양상 이해

- 학교안에서의 이주민 또는 인종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들은 한국 사회 이주민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양상과 최근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대로 전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혐오표현의 문제와 학생들의 이주민 또는 인종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함.
- 또한 학교안 이주민에 대한 혐오 현상 또한, 한국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고전적인 인종주의 즉,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넘어서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인종주의에 대한 이해와 대응으로 이어져야 함.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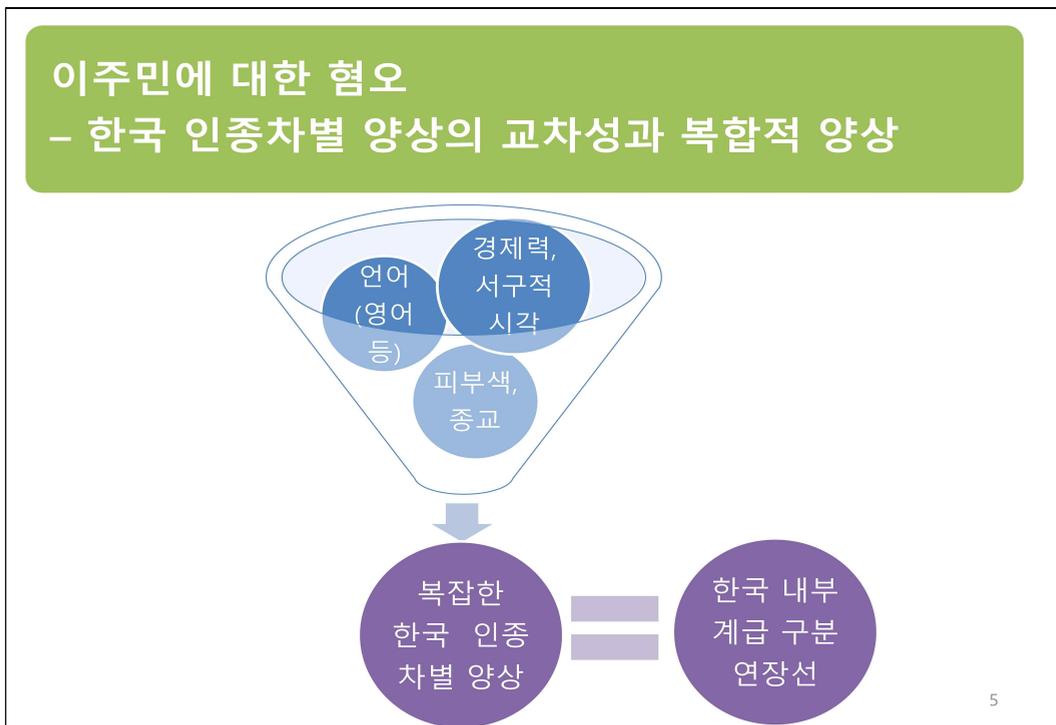
2018년 체류외국인 연평균 증가율 2017년 대비 8.6% 증가

현재 추세로 가정하면 2021년 전후로 300만 돌파(인구대비 5.8%)

주요국가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 프랑스 6%, 캐나다6%, 영국 8%

3

< (단위:만명) 출처 : 16. 7. 27.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



## 학교안 이주민에 대한 혐오 양상 이해

- 이주배경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안에서 겪는 혐오표현 또는 행동들을 대개 직접적인 혐오표현 즉, 짱계, 쪽바리, 다문화, 또는 이외 비하적 용어들을 면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비가시적인 형태, 즉 은근한 따돌림, 무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의 사례로 보고되고 있음.
- 학생들의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특수성 그리고 인종차별의 복합성과 교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주배경아동이나 청소년 인터뷰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학교 친구들 보다는 학교의 분리 시스템, 교사 그리고 관련 정책에 의한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에 따라 혐오가 조장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음.

## 성급한 범주화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이 뒤떨어진다는 내용이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 다문화자녀는 부족할 것이란 고정관념이 연구에 반영된 것이다. 발달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국내성장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그냥 묶어서 다문화자녀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이끌어 냈지만, 반대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학업성취 등 발달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다문화 낮은 다문화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연구위원 2016. 8. 9. 국회정책토론회

## 특별대우 일까, 구분과 혐오 조장일까



상당활동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학생봉사활동 활동 영역

영역	내용	활동내용 예시
교내 봉사 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학내봉사, 학교지킴이, 방학, 농어촌 등에서의 학내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유모차, 병환, 군부대에서외의 위로 활동 등 자원 구호, 교외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자라노 새싹 습관화 등	공리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반관공적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5. 봉사활동 성격의 변경  
가. 봉사활동은 1일 2시간(6교시-2교시, 7교시-1교시), 휴업일에는 1일 8시간을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며 분 단위로 집계한다. (예: 2시간 47분은 2시간으로 집계)

뉴스 기사: 부어서, 전국최초 다문화전용 주차장 설치로 갈등 지만 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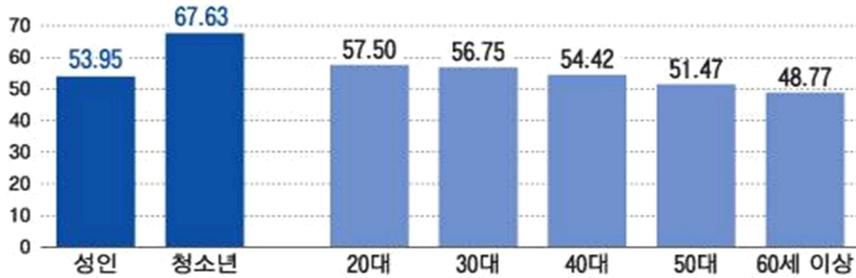


## 학교안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없애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학교 또는 직장동료, 친구관계, 친척관계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소년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성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그러나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아님
- 다문화수용성의 각 구성요소들을 다문화교육 시행시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이거나, 이중적 평가의 경우, 어떤 종류의 다문화교육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사회의 인종차별과 혐오의 복합성과 교차성의 맥락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혐오조장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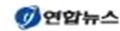
##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지수

2015년 9-11월 전국 19-74세 성인 4천명, 청소년(중·고교 재학생)  
3천640명 대상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단위: 점



※ 다문화 수용성 지수: 문화개방성·고정관념 및 차별·세계시민행동 등 8개 구성요소별 점수 종합해 산출, 100점 만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연구/ 그래프 내일신문 2016. 6. 1.

## 이중적 평가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

<(청소년) 다문화교육내용별 비교적 점수 높은 하위 구성요소>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
다른 나라 전통 소개·체험		○	○					
국제언어 배우고 대화	○	○	○					○
국내거주 외국인의 삶								
외국인 대하기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차별 인정					○	○		
다른 나라 문화 존중			○	○	○	○	○	○

○표시: 해당 내용의 교육을 받은 집단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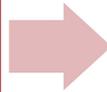
(출처,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타문화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 반차별교육의 내용을 받은 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여타의 내용을 다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 동화 기대, 이중적 평가 측면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어떤 다문화교육의 형식으로도 이중적 평가는 잘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문화소개에서 삶의 기억까지

### 이주민의 전통문화 소개

- 일본출신 이주민 - 일본문화소개
- 몽골출신 이주민 - 몽골문화소개
- 네팔출신 이주민 - 네팔문화소개
- 조선족 - 중국 및 조선족 문화소개
- 미얀마출신 이주민 - 미얀마문화
- 마다가스카르 이주민 - 마다가스카르 문화



### 이주민의 삶과 다양한 정체성 나눔

- 일본출신 이주민 - 일본인으로 한국에 산다는 것, 역사와 현재
- 몽골출신 이주민 - 결혼이주민으로서의 한국에서의 삶
- 네팔출신 이주민 -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 조선족 - 한국사회와 조선족
- 미얀마출신이주민 - 난민에 대한 이해 도모
- 마다가스카르 이주민 - 인종주의와 피부색

## 다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시각전환 필요

### 다문화가정 아동

- 문제
- 갈등 관리
- 관리 대상
- 지원 필요
- 인종적 구분 시각



### 사회 전체 구성원

- 기회
- 장점
- 경쟁력
- 평등한 공존
-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의 관점

## 통합적 교육 사례

-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교육은 통합적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단순히 피부색과 같은 고전적인 생물학적 인종주의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학교안의 혐오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외부의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천과 구로의 중학교의 경우 지역의 경우, 단순히 일시적인 1-2 시간의 다문화인권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제의 각각의 전문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반차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 사례

2015 ~2019

### 자유학기제 활용 통합적 교육구성 사례

2015년 학교, 자유학기제 참여요청, 지역의 교육 단체 협력

인권, 소수자, 노동, 학생인권, 성평등, 관련한 지역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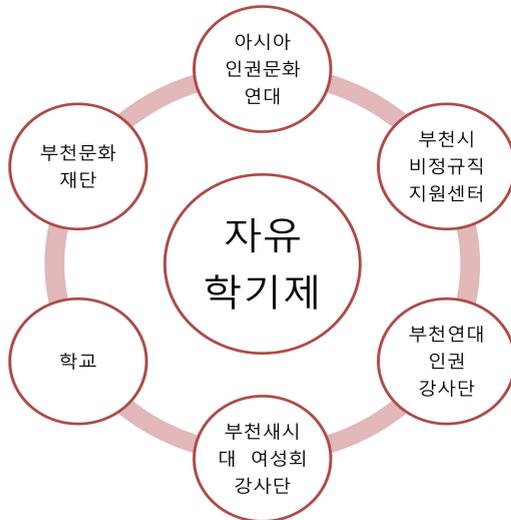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학생전체 한 학기수업 시간 (사회과목 전체시간) 배정

2015년 1개 중학교 시범시행, 2016년 3개 중학교, 2019년 5개 중학교

- 학교선택에 따라 주제 강화(다문화)  
- 다문화사회 관련 통합적 시민 교육,  
- 지역사회 협업, 실제 이웃과 스킨십

교육예산, 학교50% + 문화재단 50% 부담

##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자유학기제 내용 구성

1주제 - 시민, 인권일반, 차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주제 - 노동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3주제 - 학생인권 (부천연대 인권 강사단)

4주제 - 다양성, 이주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5주제 - 소수자, 평등 (아시아인권문화연대)

6주제 - 성평등 (부천새시대여성회 성평등 강사단)

7주제 - 연대와 실천 (참여 단위 모두)

##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1. 교육청과 학교의 혐오표현 대응 실태

#### - 혐오표현관련 권리구제예

##### 가.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안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차이나”라고 부른 적이 있고, 이를 본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 여자 차이나도 있어요. ○○○도 차이나예요.” 라고 발언하자, 또 다시 “○○○ 어린이도 차이나였구나”라고 말했다는 사안임

→ 피신청인에게 인권관련 직무연수를 부과 권고

해당학급을 대상으로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05)

##### 나. 교사가 교과 수업 내내 동성애 관련 폭력적인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을 한 사안임

교사는 학교수업시간에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사안임

→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03)

## 다.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발언을 한 사안

해당교사가 여학생의 몸무게나 자세 등을 지적하거나 외모에 비해 행동이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한 사안임

생리결석을 한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반만 여자고 다른 반 애들은 남자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임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집단 내 소통이나 서로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펜스플)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임

→ 대상기관(학교)에 차별적 발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교직원 인권교육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8-05)

## 2.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대안의 방향과 한계

###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개정

2017. 9. 2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금지' 조항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b>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

### 나.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2017. 10. 25. 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 교직원용 안내문
- 학생 및 학부모용 가정통신문

■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그 소수자가 속한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 :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 혐오표현 예시

- 차별을 조장하는 호칭: “다문화”, “차이나”, “(장)애자”, “김치녀”, “된장녀” 등
-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표현: “○○(특정국가) 사람들은 냄새난다”, “장애인은 복지예산을 축낸다” 등
- 기타 조롱(경멸)의 의미를 담아 “게이냐?”, “레즈냐?”, “장애인이냐?”라고 묻는 것, “오크녀”, “똥녀” 등 여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 등

### 3.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바라는 것

#### 가. 교사의 역할

##### (1) 교사에 의한 혐오표현금지

교사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소수자 혐오표현은 더욱 금지되어야 합니다.

##### (2) 혐오표현금지에 대한 학생교육

교사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 소수자에게 미치는 해악성, 인간의 다양성 및 차이·차별의 이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할 권리에 대해서 교육하여

야 합니다.

## 나. 학교장의 역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혐오표현이 차별 행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천명해야 합니다.

## 다. 학생, 학부모의 역할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학생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인 쇄 | 2019년 10월 12일  
| 발 행 | 2019년 10월 12일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7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두루행복한세상  
| 전 화 | 1644-0728 | F A X | (070) 8270-5278

---

ISBN 978-89-6114-699-9 9337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교육기획과  
Tel. (02)-2125-9857 Fax (02)2125-0917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99-9 93370